



기독일보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음력 9월 18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666호

코로나 이후 주일예배 안 드리는 교인 늘어

목회데이터연구소, 최근 3개월 사이 변화 분석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회와 목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코로나19 초기와 그 이후 몇 가지 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주간리포트'를 통해 내놨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조사체계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의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조사(2020.4.2~4.6,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천명 온라인 조사)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2020.7.21~7.29,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천명 온라인 조사)다이에 따르면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주일예배를 드린 형태에 대해 추적 조사한 결과, 주일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이 4월 13%에서 7월 18%로 5% 포인트 증가했다.

주일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은 40대 이하 젊은 층, 직문 없는 성도, 신앙이 약한 기독교 입문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한다.

또 연구소 측은 "4월 조사 때는 코로나19의 갑작스런 충격으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때였고, 7월 조사 때는 4월 말부터 이어진 대면예배 재개 이후의 시점여서, 출석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드린 비율은 4월 14%, 7월 39%로 대폭 올랐다"며 "반면 온라인 예배 비율은 52%에서 26%로 대폭 낮아졌다"고 했다.

코로나19 종식 후 예배 형태에 의향에

선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릴 것 같다'가 4월 85%에서 7월 76%로 9% 포인트 줄었다. 반면 '필요한 경우 온라인·방송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4월 13%에서 7월 17%로 4% 포인트 늘었다. '아예 교회를 안 가게 될 것 같다'는 응답은 4월 2%에서 7월 6%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 가운데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은 3개월 사이 41%에서 29%로 낮아졌고, '온라인 가정예배로도 주일성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은 55%에서 61%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움 점으로는 '성도 간 교제가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예배에 집중하는 것' 19% '스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 19% '스개인의 신앙생활' 17%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으로는 '스온라인 시스템 구축·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4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스교회 공동체성 강화' 17% '스교인들의 교제' 11% '스성도들의 지역 섬김' 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 집회 자제 등 권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묻는 결과 36%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7%였다. 그러나 교회 중직자 층에서는 절반(50%)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 같은 조사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교회에 가서 직접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분석하면 2가지 경우가 발견되는데, 첫째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굳이 교회에 가지 않

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이 시대에서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고 변화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대처하기는 더욱더 쉽지 않다"며 "그렇지만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곧 닥쳐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서온 변화 앞에서 교회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한다. 불투명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개교회 차이를 넘어 신학교, 총회, 연합기관 등 여러 단위에서 힘을 모아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다니엘처럼 기도” 2일 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기도회가 진행 중이다. 첫날 기도회는 제헌된 인원이 참석한 현장, 그리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총 참여 교회 수는 약 1만4천 개였고, 유튜브 생중계 영상의 동시접속자는 4만여 명이었다. > 관련기사4면

“대한민국의 ‘에이즈’ 증가, 문란한 성문화에 기인한 것”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연세대 김준명 명예교수 발제... 에이즈 현황과 확산 원인 설명해 충격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준명 교수(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대한민국 에이즈 현황과 확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충격을 줬다.



김준명 교수는 "2020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제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침구콘딜롬 등은 제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또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사업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자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매년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HIV 감염자가 1,000명 이상 돌파한 이후로, 2019년에는 1,200명 이상 발생했다. 또한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 20대에서 발생이 35% 이상으로 급증했다. 10대까지 포함하면 40%에 육박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임을 보고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서 HIV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간 성 접촉이며 전체 60%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경우가 70%를 넘었다"며 "더욱 놀라운 건 18-19세의 10대만을 조사해보면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HIV에 감염된 사람이 이성 간 성 접촉을 할 때 감염될 확률은 0.05%로 알려져 있다. 반면, HIV 감염인과 항문 성교를 할 경우 그 감염률이 1.4%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며 "다시 말해 항문 성교 행위는 일반적인 이성 간 성 접촉에 비해 에이즈 감염 확률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국내 HIV 감염인 중 38.7%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2013년 이후 국내에서 매독과 신규 HIV 감염을 증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두 질병 간 상관관계가 연구논문을 통해 제기돼 왔다. 실제 임상연구에서도 HIV 감염인에서 매독의 급격한 증가가 보고되어 왔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국내 HIV 감염인의 48%가 매독에 감염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이처럼 매독과 더불어 성기단순포진, 침구콘딜롬, 클라미디아 감염증도 최근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성매개 감염병의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면 성적 활동이 활발한 20-30대와 함께 60대 이상 노인층에서도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최근 문란한 성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성매개 감염병의 고위험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 청소년을 비롯해 젊은 층, 60대 이상 노인, HIV 감염인, 유흥업소 종사자, 그리고 동성 간의 성 접촉 경험자 등 고위험군의 자발적인 검진과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11면에 이어 노형구 기자

“연탄나눔은 연탄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운동” >> 2면

미션파트너스 포럼 “단기선교여행 막 내려” >> 7면

기독미술작가 전태영 “생명 살리는 작품들” >> 23면

홍콩 경찰, 민주파 의원 4명 등 입법회 의사방해로 체포

홍콩 민주파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확대하는 캐리 램(林鄭月娥) 행정장관 정부는 입법회(국회) 현직의원 4명을 포함하는 민주파 정치인 7명을 일제히 체포했다고 동방(東網) 등이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전날 입법회 의원 4명과 민주파 정치인 3명을 지난 5월8일 입법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

한 혐의로 전격 연행했다. 민주당 우치와(胡志偉) 주석과 공당(工黨 노동당) 귀왕킨(郭永健) 주석, 전 의원 에디 추(朱凱迪)와 라이 찬(陳志全) 등이 체포됐다.

이들 민주파 정치인은 '입법회 권력특권 조례' 모욕죄와 입법회 직원 방해죄로 전원 기소된 후 보석으로 일단 풀렸다. 우치와와 주석 등은 오는 9일 동구(東

區) 법원에 출두하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46만원)를 선고받게 된다.

민주파 진영에서는 무차별적인 검거와 탄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입법원에서 민주파는 7개월에 걸쳐 중국국기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내무위원회 의원장 선출에 막았다.

그러다가 5월8일 친중파가 내무위원회 개최를 강행하자 민주파가 막아서면서 대처하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다. 국가조례는 6월 결국 친중파에 의해 찬성다수로 성립했다.

한편 홍콩에서 6월30일 현지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이 시행된 이래 민주파 활동가와 정치인 등이 검거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준 기자

2층 전체 세프존 입점확정!

스타 세프들에게 월세 받는 특급상가 선착순 분양

안정적 임대투법

슈퍼우량임차인 장기임대확정!
특급 세프들에게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대상권 최초 스타세프존!
건대상권에서 처음 만나는 스타세프존으로 전구, 커피, 가족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구매력 높은 프리미엄 주거벨트!
더라운 맨드하우스, 더블레스500, 자영호반씨티 플레이스 등 고급 주거지 인접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상업시설

최현석, 여경래 등
대한민국 최정상 스타 세프들이 선택한 단 하나의 자리!

상가활성화를 위한 특급 레시피!
건대 최초의 스타세프존 탄생!

1566-8660

상업시설 총 31실

홍보관 찾아오시는 길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28

이찬수 목사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인생의 큰 그림 그리자”

분당우리교회 ‘행복한 시나이’ 주일에 배서 설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1일 ‘행복한 시나이’ 주일에 배서 설교하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살자(신32:48-5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모세는 오랫동안 가나안 땅을 목표로 달려간 인물”이라며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장벽력같은 말을 하신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신32:52)”이라며 “모

세는 어떻게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맥에 최고봉인 ‘노보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 꿈에도 그리던 자기 자손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며 “우리의 인생도 모세와 똑같다. 내가 가나안을 목표로 했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중간에 자주 꺾인다.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박병을 만나 듯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와 같이 목표로 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끝나버리는 것과 같은 실패감을 느끼기 쉬운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그런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나

의 인생을 조망해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신 것이 이것이야. 내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나이가 들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잘못된 자기연민”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을 감아 먹는다. 자기연민이 바로 이 세균과 같은 것”이라며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내면에 자기연민 즉,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연민을 받는 자부심, 긍지를 가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세가 범되 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한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인지라 계획에 어긋나거나 당황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교회 동영상 캡처

러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연민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목사는 “이러한 어려움은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노보산으로 가야한다”고 말

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 봤을 때 나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늘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노보산으로 이끌림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넓은 시선으로 노보산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균형을 얻게 된다. 먼저는 ‘자기 존재와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며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락이다. 우리는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은 죄성을 가진 작은 자임을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김승욱 목사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죽음으로 주께 영광을”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가 1일 교회 홈페이지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목사는 “지난 수요일은 유난히도 길었던 시편을 썼던 것 같다. 총 72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78편은 우리가 보통 써왔던 시편 한 두 장의 분량보다 두배가 넘는 말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손에서 쥐가 나는 것 같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참 컸다”고 했다.

이어 “그중 39절의 말씀이 제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왜 그들에게 지속하여 긍휼을 베푸시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연약한 육체인 것을 아신다는 것이다.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생임을 보시고 우리를 쉽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어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 하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세계 뉴스는 헤이건회 삼성그룹 회장의 부고 소식을 널리 보도했다. 그만큼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영리더십을 보인 인물이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영상 캡처

였고, 특히 그가 이끈 삼성전자와 갤럭시 스마트폰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헤이건회 회장보다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한 분의 소천 소식이 있었다. 그동안 세계변혁운동의 주요멤버로 동역했고, UN이 인정하는 기독교 구제단체인 ‘글로벌 호프(Global Hope)를 이끄셨던 할 존스(Hal Jones) 선교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소식이었다. 바로 그 전 주간만 해도 함께 TW(Transform World) 세계변혁운동 리더십 컨퍼런스를 활발하게 섬겨주셨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TW 공동체의 모든 분들에게 큰 충격이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정말 안 되는 것이라고 새삼 깨닫는 한 주였다”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 바람과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동안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잘 섬겨야겠다고 마음을 다쳐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만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도 또한 보여주셨다”며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며, 특히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아마도 임종의 순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특히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불침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저를 위한 소망이면서 동시에 성도님들 모두를 향한 소망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속에 살면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잘 마감하는 것”이라며 “그러하여 우리의 삶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인생은 실패하는 것”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메시지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가 1일 교회 홈페이지에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목사는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가 된 후 유럽을 석권하고자 병력을 보강하고 탁월한 전략전술로 계속 전쟁을 일으켰다”며 “1815년 6월 유럽의 판도를 뒤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 ‘워털루전투’가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나폴레옹이 이끄는 12만 5천의 프랑스 정예군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유럽 연합군이 워털루에서 결전을 벌였다. 6월 15일 아침 나폴레옹의 선제공격으로 프랑스군의 기세는 점점 올라가 시작했고, 해가 질 무렵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나폴레옹은 자신의 최정예 부대에 웰링턴 장군의 사령부가 있는 능선 위를 점령하라는 돌격명령을 내린다”며 “나폴레옹의 친위대들은 목숨을 걸고 능선 위를 장악했지만, 능선 뒤쪽에 매복하고 있던 병사들의 집중사격으로 인해 모두 총에 맞아 몰살당한 다. 그리고 프로이엔 연합군이 도착하면 서 나폴레옹은 퇴로까지 차단당해 포로가 되어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뛰어난 전략



큰은혜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규호 목사. ©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전술로 연전연승을 해왔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다. 인공위성에서 보면 사방이 백인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면 길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내 인생의 길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배의 평안은 물의 수심 이 아니라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달려있다”며 “우리의 영혼에 사조(患潮)나 세상의 방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두렵고 불안해진다. 평안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서 오는 것

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믿음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Under Construction)이다. 현재 나의 모습이 실망스러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 록 도와주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는 임하면 불안과 분노가 감사로 바뀐다. 갈릴리호수는 요단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맑고 물고기가 자란지만, 사해는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새살이 돋는 것 같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위로의 전달자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는 끊임없이 넘쳐나게 된다. 우리가 위로의 총장지가 아닌 위로의 전달자가 될 때 불안은 사라지고 분노는 해결되어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라며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 나의 모습 때문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기 바란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기억하라 기대하라, 새 길을 만드시는 주

Expect the New Way Maker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현상인 '제18차 특별새벽부흥예배'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말씀나눔 특별새벽부흥예배'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 43:19)

1차 참여교회: 칼텍, 사목선, 해외 선교사들(비보안지역), DMGP, 에베에셀연합회 소속교회, 미래지평교회 등

· 해외 - 유럽 Union School of Theology (Dr. Michael Reeves) / BBSO (Rev. Crist Sonea) / Evangelical Church (Rev. Mircho Andreev) / Broca Di Roma (Rev. Liberato Vitale) / Broadgrace Church (Rev. John Hindley) / Bible Seminar Bonn (Dr. Heinrich Dertsen) 유럽 개척 및 파트너링 120개 교회 / 아프리카 EKH-Ethiopia (Dr. Semoen Melatu) / Mauritius Anglican Church (Rev. Eric Ma) / Accra Ridge Church, Ghana (Rev. Bedako-Akolo Daniel Osei) / Presbyterian Church Denomination, Ghana (Bishop Victor Okoe Abbey) / Methodist Church Denomination, Ghana (Bishop Paul K. Boatu) 아시아 Reformed Evangelical Church of Indonesia (Dr. Stephen Tong) / CEFC (Rev. Tony Yeo) / Myanmar Anglican Church Mandalay (Bishop David Nyi Nyi Nang) / TCM Church Ministry (Rev. Dhan Tamang) / Anglican Diocese of West Malaysia (Archbishop Moon Hing Ng) 호주 Australia Anglican Discipleship Network (Canon Wong) 북미 Billy Graham Evangelical Association (Rev. Franklin Graham) / Saddleback Church (Rick Warren) / Wheaton College (Dr. Robert Coleman) / YWAM (Loren Cunningham) / Warner University (Dr. David Hoag) 남미 Brazil Presbyterian Denomination (Moderator Robert Brasileiro Silva) / Mackenzie Presbyterian University (Chancellor Davi Charles Gomes) 해외 300여개 교회 및 단체

가나 아프리카교회(유승범) / 탄자니아 UAL(황호찬) / Kafa Myanmar(조현진) / 손치센터(차형택) 38개 현지선교교회 및 단체, 동경중앙교회(이강현목사), 씨드선교회(박신목사), 필라델피아제자교회(이정철목사), 오콜랜드한우리교회(남우택목사), 타이중순복음교회(서상진목사) 외 이인교회, 사랑의교회 피층 / 협력 해외선교사들

· 국내 - 광주침례교회(임동현목사), 능곡중앙교회(천세봉목사), 대구대흥교회(김영철목사), 대구동신교회(권성수목사), 매곡교회(정도성목사), 목포사랑의교회(백동준목사), 민들레교회(신동채목사), 부전교회(박성규목사), 빛과소금교회(조현우목사), 세로남교회(오정호목사), 서로사랑의교회(박성수목사), 서산제일교회(신광수목사), 시온소교회(김철승목사), 울산대영교회(조 운목사), 온사랑교회(김은수목사), 이천신교회(홍성환목사), 인산교회(오주환목사), 전주새중앙교회(홍동필목사), 제주서문교회(강기욱목사), 청주중앙교회(이강일목사), 춘천중앙교회(이병철목사), 하나사랑의교회(조철수목사), 한미음예담교회(이정택목사), 흠뻑사랑교회(최성태목사) 130개 국내교회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말씀나눔 특별새벽부흥예배**

주후 2020년 11월 9일(월)~13일(금) 오전 4시 30분,
11월 14일(토) 오전 5시 30분 / 장소: 사랑의교회

※ 특별새벽부흥예배에 함께하실 교회는 krischang@sarang.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65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www.sarang.org

11월 9일(월)	11월 10일(화)	11월 11일(수)	11월 12일(목)	11월 13일(금)	11월 14일(토)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비보안지역)	브라이언 박 목사 (CTS 플링컨)	마이클 리브스 교수 (영국 유나이티드교회 총장)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크리스찬 쇼미 목사 (쿠마리아제자교회)	김화연 목사 (순살교회)
릭 워렌 목사 (사해교회)	오은주 집사 (영광교회)	로렌 커닝햄 목사 (YWAM 설립자)	문 성선교사 (NLM, 푸루누기, 푸루누)	로버트 콜먼 교수 (트리티아르곤)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 특별새벽부흥예배는 현장예배(예배실 좌석)의 30% 이내 인원이 참석하고 온라인생중계예배(SaRang On 유튜브 채널과 SaRangTV)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교회는 감염병 예방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진행 합니다.

“연탄나눔은 연탄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운동”



제자교회 정경표 목사 ©노형구 기자



연탄나눔사역을 하고 있는 봉사자의 모습. ©정경표 목사 제공



연탄나눔사역을 하고 봉사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정경표 목사 제공

힘내라! 한국교회

제자교회 정경표 목사

기독교보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연중 기획 인터뷰 ‘힘내라! 한국교회를 진행한다. 열여덟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부천시 원마구에 있는 제자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담임 정경표 목사(55)다. 정 목사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제자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정 목사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사랑의연탄나눔운동이 진행되는 연탄나눔운동 사역에 뛰어 들었다. 햇수로 12년이나 됐다.

정 목사는 “단순히 연탄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봉사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연탄을 구입하고 몸으로 직접 연탄을 옮기며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과 만나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운동’이라고 했다. 다음은 정 목사와의 일문일답.

Q.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은 내게 ‘목회하기에 좋은 인성’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이후 고등학교 때 진지하게 진로를 놓고 기도했다. 마침내 목회로 교회에 출석하며 기도를 하고 서원을 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잡았다. 대학 입시는 오직 한신대만 목표로 했다. 첫해는 불합격하고 이후 정신 바짝 차려서 재수한 끝에 한신대 신학과 86학번으로 입학했다.

Q. 교회 개척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A. 모든 교역자가 그렇듯, 나 또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데 비전이 있었다. 죽기

전 내 생애에 개척교회를 세우겠다는 열망이랄까. 기도를 꾸준히 하다가 발음교회(기장)가 50주년을 맞아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교로 응모하고 ‘개척을 전제로 발음교회 부목사로 3년 동안 일한 뒤, 2004년부터 지원을 받아 부천에서 개척을 시작했다.

Q. 교회를 개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A. 목회자가 생각한대로 곧장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지역사회 섬김을 위해서 연탄나눔사역을 하고 싶었다. 이런 제안을 교인들에게 했을 때, 유연하게 잘 받아주셨다. 평화롭게 진행됐다. 목사의 소신이 고집스럽지만 않다면 성도들에게 취지를 잘 얘기하고 설득하면 긍정적으로 원하는 개척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사)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연탄나눔사역에 참여했다. 초창기에는 전 교인들이 다 참여했다. 지금은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교인들만 참여하고 있다.

Q. 현재 연탄나눔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사)사랑의연탄나눔운동 부천시부를 중심으로 부천시 대장동과 인천 부평 산곡동 등지에서 연탄나눔사역을 하고 있다. 이곳은 도시개발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다. 방값이 싸고 집들이 다 닳다닥 붙어 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히 노년 계층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주거환경이다. 그러나 어르신들 입장에서 연탄만큼 ‘가성비’ 좋은 연료가 없다. 연탄을 교체하고 연탄재 처리 등의 불편함은 있지만 연탄 화력이 오래가니까. 방안에 온기가 하루 종일 감돈다. 부

천시 대장동에는 대략 3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대략 한 가정이 겨울을 나려면 대략 연탄 1,000장을 드려야 한다. 한 가정에 11월부터 2월까지, 주중에 3-4번 정도 방문해서 연탄 나눠 드리고 있다.

Q. 이런 사역을 통해 추구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있다면?
A. 연탄나눔사역운동은 단순히 연탄을 나눠주는 복지 차원이 아니다. 봉사자들이 돈을 내고 연탄을 사서 직접 몸으로 연탄 옮긴다. 그러면서 나눔을 받는 어르신과 만나 대화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

등 스스로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하다.

A. 물론 고갈될 때도 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면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니 절로 힘이 난다. ‘저 아이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나서 더욱 분발한다. 보통 사역은 2월에 끝나 9월부터 새롭게 준비를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다른 분이 이 사역을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를 극복하고 다시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역을 해왔다.

“단순히 연탄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다. 봉사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연탄을 구입하고 몸으로 직접 연탄을 옮기며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과 만나 사랑 나누며 따뜻한 세상 만들자는 운동”

“봉사 하면서 ‘내 것을 주기만 하면 고갈 된다’는 말도 듣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이들 봉사하면서 재잘거리며 웃으면 희열과 에너지를 받는다. 이게 나의 목회의 에너지가 아닌가”

해 사랑을 나누자는 ‘운동’이다. 단순히 연탄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정서적 돌봄의 효과도 크다. 특히 어르신들이 우리 봉사자들을 기다리신다. 주로 초·중·고등학생, 교회 청년부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 교회는 원래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랑을 받고 이를 흘려보내는 장소다. 이런 톨모델을 사회적 모델로서 구축해 일반인들도 참여해 사랑을 주고받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이 사역의 목표다.

Q. 어쩌면 봉사는 내가 사랑을 주는 사역인데, 그렇게 되면 ‘번 아웃(Burnout)’

역은 해마다 2,000여 명의 일반인이 참여한다. 이 연탄 사역을 통해 일반인들도 교회에 대해 밝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경우를 많이 봤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 친지나 주변인들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았을 때 교회에 대한 수용도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 사역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줄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기대한다.

Q. 연탄나눔사역에 집중하면 자칫 교회 사역이 소홀해져서 성도들이 섭섭해 하는 반응은 없는지?
A. 처음 연탄나눔사역을 시작할 때, 모든 성도가 참석했다. 지금도 꾸준히 연탄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 몇 분이 계신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게 자유의사다. 다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는 변함이 없다. 또 하나는, 연탄나눔사역을 한다고 교회 사역에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탄나눔사역은 주로 11월부터 2월까지 집중한다. 이 기간을 비롯해 나머지 시즌 동안 일정이 비어 심방 등 성도들에게 영적 돌봄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항상 연탄나눔사역을 하지 않고, 그 외의 일정을 비어 있으니까. 그때 성도들과 만나 연탄나눔사역을 통해 경험했던 여러 일화도 얘기 나누고 그런다.

Q. 사역하면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A. 딱히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항상 도와주시니까 기쁘게 살자는 것. 그리고 삶에서 사랑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내 것을 나누며 살자는 게 신조다. 봉사를 하면서 ‘내 것을 주기만 하면 고갈 된다’는 말도 듣

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연탄나눔 사역에 참가하는 초·중학생들이 오면 말도 안 듣고 그런 고충들이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봉사를 하면서 재잘거리며 웃으면 희열과 에너지를 받는다. 이게 나의 목회의 에너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긍정적이고 밝아졌다.

Q. 끝으로 나에게 복음이란?
A.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복음이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기쁨이다. 이런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는 게 내 목회의 비전이다.

Q. 어떤 주에 전하신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사무엘상 17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골리앗 앞에 서 있다. 교회가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것 같다. 교회가 패배 의식을 버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맞서 싸우는 내용으로 전했다.

사울은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다. 한국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싸운 것 같다. 교회 성장 등의 외형적인 모습만 쫓아가는 게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러나 영적 전쟁은 다윗이 잘라서 승리한 게 아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사울의 갑옷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처럼 작은 교회 나름대로 스타일을 가지고 사역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노형구 기자

토라 모세5경으로 배우는 복음 제자 소명


첫번째 시리즈
창세기



두번째 시리즈
출애굽기, 레위기



세번째 시리즈
민수기, 신명기



복음 제자 소명

배성환 지음

추천사

배성환 목사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한다. 그의 삶에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다.

홍성건 목사 | NCMN 대표, 국제 YWAM 동아시아 대표, 전 한국예수전도단 대표

본문을 해석하면서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도출합니다. 따라서 기록한 ‘메시아 프로그램’(messiah program)이 중심이 되어 기록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이 흐르고 있으며, 때로 매우 독창적이고 통찰력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의미와 해석이 등장합니다.

박영호 박사 | 기독교문서선교회(CLC) 대표, 전 한국성서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저자소개

부족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배성환 목사는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88회)을 졸업하고 1995년부터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산성교회(http://web.godpia.com/sansung21)를 섬기고 있다. 성남노회 노회장을 역임한 그는 미국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박사학위(D. Min)를 취득했다. 그는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성도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로’라는 표어로 목회사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선교에 대한 부담으로 1995년부터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신학교와 목회자 세미나 모임에서 말씀 사역으로 섬기고 있다.

상호: 사단법인 기독교문서선교회 | 도서문의: 031-942-8761 | 대표메일: clckor@gmail.com

네이버에서 **NAVER** **복음 제자 소명** 검색을 하세요!

“우리를 고치고 구원하실 주님께 기도하자”

‘2020 다니엘기도회’
21일 간의 대장정 시작

21일 간 열광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1일, 그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현장, 그리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총 참여 교회 수는 약 1만4천 개였고, 유튜브 생중계 영상의 동시접속자는 4만여 명이었다.

예레미야 17장 12-16절, 시편 42편 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김은호 목사(오윤교회 담임,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는 “오늘부터 21일 동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기도에만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예배당과 가정, 직장, 지하철, 선교지 등 여러 곳에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현상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에 힘입어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했다.

김 목사는 “다니엘기도회는 정치적 행사도,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이벤트도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회”라며 “기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하늘에 계신



‘2020 다니엘기도회’가 1일 밤 8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날 제한된 인원이 오윤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있다. ©다니엘기도회 유튜브 영상 캡처

아버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 아버지는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시편 42편 5절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라.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오직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칠 수 있다”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처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렇기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바라

보지 말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바란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1.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2.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김은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이 민족이 하루 속히 통함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3.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 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4.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묵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5.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시고, 땅 흘러 수고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감동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1.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2.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3. ‘복음의 전함’과 ‘다니엘기도회’의 연합 사역을 통해 비대면 선교의 새 길을 열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멈추어 버린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소서

한편, 앞으로 21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기도회 강사는 차례대로 박철현 선교사, 천정은 자매, 권호 교수, 앤디황 교수, 배영호 전도사, 김영서 작가, 오윤아 집사(탈렌트), 김상숙 권사, 주민호 선교사, 지현호 선교사, 김예랑 성도, 박광식 문화선교사, 김연재 작가, 김은진 사모, 박유 형제, 임종원 목사, 신애라 집사(탈렌트), 최병락 목사, 정윤선 대표다. 마지막 21일은 간증의 밤으로 진행된다. 김진영 기자

“미중 사이 전략적 중립은 대한민국 망치는 길”

살롬나비 논평 “우리가 취할 외교노선은 ‘친미교중’”



살롬나비 논평 “우리가 취할 외교노선은 ‘친미교중’”

살롬나비는 “현재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에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한미 간에는 전작권 화수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BTS 발언에 대해 유지하기 짝이 없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남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방사포와 미사일로 무력 과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엉뚱한 환상을 그리고 있는 판에 주미대사까지 여기에 가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패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국제사회란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와 상호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밀려와 마주치는 변곡점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더라도 언제든지 고려 싸움에 세우 등 타지는 형국을 맞게 될 환경조건이다. 그래서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는 여전히 중첩을 수 없는 혼돈과 위기감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구조적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미래의 좌표를 짚어 놓아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한미일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계속 친중, 친북으로 기울어진다면 국가안위는 걸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질 것이다. 오늘의 한반도 주변 정세도 구한말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체제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의 대립구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자유시장경제의 확장에 힘입어 공산체제가 이념적으로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어 상호 이해와 힘의 세력균형을 이루고는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 현실은 해체할 수 없는 구조적 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는 변함없이 그대로이고, 북-중-러 동맹관계를 외치는 구호와 그 뿌리도 변화된 것이 없다. 이 고정 틀을 깬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대단한 모험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일본과

의 동맹 관계의 틀을 무시하고, 친중, 친북 노선으로 치닫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남북한이 이념의 벽을 넘어 오랫동안 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위험들이 밀려올 것인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체제는 제대로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산화의 우산 아래로 짓밟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들”이라고 했다.

또 “문제지 정부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중립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라며 “미국과 중국, 강대국의 틈에서 우리가 취할 외교노선은 ‘친미교중’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즉 “문자 그대로 미국과는 사이좋은 혈연관계로서 더 가까이 사랑하며 친(親)하게 사귀는 것이고, 중국과는 주고받는 교제(交際)의 관계 정도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혹자는 소위 G2라고 불리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의 처지를 감안하여 균형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거나 실용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변한다”며 “마치 새롭고 진취적인 외교정책이나 되는 양 떠들어 대지만 사실 국제관계에서 보면 엉터리 술책일 뿐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균형자 외교론을 실행해 본 바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리 외교론을 시도해 본 바 있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오늘의 국제관계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국익이나 국가안보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유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까닭”이라며 “고래싸움의 틈에서 새우가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한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한계는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저마다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데 유독 우리가 실리외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진짜 실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한계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처럼 우리사회 곳곳에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친중, 친북 발언들을 심각하게 알아내고,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선택 사항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분별없이 국론분열로 치닫만 해도 되는 것인지 국가의 미래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KANU

A M E R I C A N O

이 카페는 24시간 오픈, 여기는 카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KANU

11월 3일 화요일 10:00 ~ 24:00

“민간의 北인권기록, 北인권 개선 위한 중요한 축”

최기식 前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취임

법무부에서 통일법무과장과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장을 역임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북한-통일’ 전문가로 꼽히던 최기식(51·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산지 파트너 변호사(사장)가 11월 3일 민간단체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겸 이사로 취임한다.

NKDB는 2007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부설 기관으로 개설해 14년간 매

년 『북한인권백서』와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물을 발간해오고 있다. 법무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인권 침해 관련 자료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아 보관하고 있다.

국가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모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직을 맡는 사례는 최 변호사가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경남 밀양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신실한 개신교인으로, 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1년부터 서울지검 서부지청 초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치며 19년 4개월간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독일 뮌헨대 연수와 주독일한

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을 거친 뒤에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역임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후에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2018)」、「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의 형사법제(2016)」 등 다양한 논문을 집필하면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직을 맡아 검찰 내 대표적인 북한-통일 전문가로 여겨져 왔다.

올해 9월 검사직을 내려놓을 당시에 최 변호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조인 자격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던 제게 하늘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법조인의 사명을 부여해줬다’면서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신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취임을 앞두고 NKDB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관과 민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공직을 그만두고 민의 입장에서 북한인권을 기록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형사 소추나 피해자 복권 등 형사법적인 측면에선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지만, 북한인권 정보 수집해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

선하는 데 있어선 민의 역할도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면서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업무를 두루 파악하며 앞으로 민간단체가 확장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 대사과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現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도 NKDB 신임 이사진으로 합류한다. NKDB는 북한 전문가는 물론 국내국제법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향후 북한인권 기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기록 활용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홍은혜 기자

“경제 상황 어려워져도 교회는 생존”

김근수·신원하 교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주제발표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지난달 31일 칼빈대학교(총장 김근수)에서 ‘새로운 시대 목회 후보생 발굴과 양육’이라는 주제로 제75차 정기논문발표회 및 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예배 설교에선 김근수 총장(칼빈대학교)이 ‘자다가 깰 때’(롬13:1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총장은 “한국교회가 먼저 도덕성을 회복하고,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미래가 더 밝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도 맡은 김 총장

은 “종교사를 보면 없어지는 교단은 없으며 결국 생존한다”며 “이유는 창조적이고, 신앙적인 소수가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종교를 떠나서 이유를 거시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종교와 경제는 물론 깊은 연관이 있지만, 경제 수준에 따라 종교의 다양화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다가오고, 이것이 근본적인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오며 결국 종교사회가 멸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경제가 고갈해도 교회는 뜨겁다”며 “가난한 성도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며, 지금도 제3세계의 교회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

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생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신학이 부재한 근본주의 신학적 형태들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며 “여기서 근본주의는 지나치게 교회와 사회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압박한 종말론을 내세워 현재의 삶을 부정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단강 저 편에 치우치는 신학이어서 안 된다”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 미래 뿐만 아닌 현재도 동시에 강조함으로, 책임과 윤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합리적 선택의 이론, 즉 신앙하는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신학 대학들이 시장경제를 떠나서 생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도들이 여전히 있고 발굴하며 후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며 “그런 면에서 먼저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과잉보호를 피해야 하며, 두 번째는 중간 지점의 경계선을 뒤선 안 되며,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과 이성의 대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장)는 “신학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교단 지역 신학대들조차도 정원 미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신학대들은 학생 감소로 재정적 어려



칼빈대 김근수 총장이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논문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유튜브 영상 캡처



고신대 신원하 원장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유튜브 영상 캡처

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목사 후보생 질 저하를 염려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신학 교수들의 강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학에

초점을 맞춰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좋은 목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동 기자

NCKK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평화 해결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용정 목사)가 2일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속해 있지만 주권 대다수가 아르메니아계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토분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NCKK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이 심화 되어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먼저 밝히고, “동지중해로부터 코카서스 주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속한 나고르노-카라바흐는, 패권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상존적 무력충돌의 지점이 되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전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문제와 더불어 기독교 사원, 수도원과 같은 오래된 문화유적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분쟁은 다양한 이유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이 분쟁의 쟁점은 코카서스 남부에 투자한 러



시아, 터키, 이란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 세력의 개입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분쟁이 계속될 경우,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이 더 큰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NCKK는 “4세기 초(전통적으로 301년)에 기독교를 공식종교로 채택한 최초의 나라였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며, 1915년 4월 24일 산-투르크에 의해 시작되어 150만 이상이 학살당한 아픔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아르메니아인이나 다른 민족에게도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법을 따라 적대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안보와 평

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제3국의 모든 언행이 긴장감을 조성하지 않고, 평화의 바람 일으키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NCKK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일어나든 당면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킬 뿐”이라 지적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땅과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생명의 만개를 위한 평화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할 것”이라 했다.

한편 NCKK는 성명을 아르메니아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 (Mother See of Holy Etchmiadzin), 한국정교회, 미국 아르메니아교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NCKK, 가톨릭과의 ‘신앙직제일치’ 선언 철회하라”

오직예수사랑선교회(대표 하베드로)는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와, NCKK 사무실이 있는 한국기독교교회관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퇴진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영업 신학박사의 글을 인용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12월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회년(Jubilee of Mercy) 동안 한시적으로 가톨릭 모든 사제들에게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교황의 ‘관용’에 환호하지만, 개신교인들은 교황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어리둥절해한다”며 “교황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제멋대로 (낙태) 죄를 용서할 권한을 사제들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자 교회의 으뜸으로, 교회의 최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세를

안zene 행사할 수 있다면서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제882조, 교회헌장 22조, 주교교령 29 참조)”며 “가톨릭 문헌에는 ‘우리주 하나님 교황’이라는 호칭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교황이 바로 대살로 나가후서 2장3~4절에 나오는 ‘모든 신이 나 예배의 대상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죄(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6절에 선포되었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 뿐이다. 로마의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이다. 교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

적하는 자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종교개혁에 앞섰던 마틴루터는 ‘교황은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이 올려놓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요 적그리스도이다’라고 천명했고, 존 나스도 ‘수 세대에 걸쳐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했으며, 요한 웨슬레도 ‘로마교황이 바로 죄의 사람이다’고 지적했을 정도였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NCKK에 소속한 9개 교단의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NCKK에서 당장 탈퇴하고, 가톨릭과 신앙직제 일치선언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배도 선언을 철회한 이후에, 비로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여 한국 교회와 신앙을 사수하자”고 외쳤다. 노형구 기자

TEMPUR
100명만 가질 수 있는 LIMITED EDITION
TEMPUR LYKKE
GENUINE REST

Northern European Simplicity
Sound: Beosound Stage, Bang & Olufsen
High Quality Fabric, 100% Wool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tempur.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미주 한인 교계 공개 포럼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주최로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송정명 목사는 오는 1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공개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미주에서 사역하는 12명의 신학자와 목회자, 전문가들이 12가지 소주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자립도 있을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발제자의 논문은 한데 모아 책으로도 발간된다.

주최측은 현장 참석(예약)과 함께 CTS 아메리카를 통한 TV중계,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국경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누구나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는 새생명비전교회 웹사이트(www.nlvc.org)에 접속해



미주성서화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새생명비전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 될 공개 포럼을 소개했다. ©기록일보

간 방송으로 국경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누구나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는 새생명비전교회 웹사이트(www.nlvc.org)에 접속해

“온라인예배”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새생명비전교회” 혹은 “New Life Vision Church”를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운영위원장으로 포럼 준비를 총괄하

는 이상명 총장은 “팬데믹을 통과한 이후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도전과 위기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가 고민해야 할 주제를 가지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다양

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상명 총장은 이어 “포럼에서 소개될 논문은 학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담았고, 실제적 예시와 구체적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력을 높였다”며 “이번 포럼의 원고는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도움이 될만한 성숙하고 수준 높은 논문으로 출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중기 목사는 “반복되는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의 초대교회는 서기 150년 0.07%에서 350년에는 52.9%로 증가했다”며 “참으로 역사적이고 심각한 도전 앞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버추얼 콰이어’로 성탄절 찬양

성탄절 찬양 연주회 참여 대상 확대 찬양 영상 제작으로 지역 교회 섬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탄 기대



양 영상으로 지역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특별한 ‘성탄 축하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예배로 많은 교회가 예배 시간에 이전처럼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이 가능한 교회는 버추얼 콰이어(virtual choir)로 대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 찬양을 대체할 방법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교회의 큰 절기인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어 찬

매년 성탄절에 주옥 같은 찬양으로 남가주 지역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상 찬양대를 모집해 찬양에 배를 마련한다. 또한 연주회 참여 대상을 확대해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찬양이나 악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미 회장은 “매 해마다 많은 찬양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 하였지만 올해 성탄절은 개인이 찬양해 녹화한 영상을 모아서 ‘가상 찬양대’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됐다”며 “그 어느 때 보다 풍성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 회장은 또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이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 하리다’라는 시

편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셔서 아직도 호흡을 하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찬양은 지난해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학생 찬양 경연대회’에서 기아 부문에 우수한 학생들 및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와 함께 한다.

찬양대원이나 또는 악기(바이올린, 첼로)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 310-381-9835 또는 이메일 hchon@gucla.edu 로 문의하면 협회에서 준비한 반주 영상과 악보를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필라델피아 흑인 시위로 인근 베트남 침례교회 ‘전소’

“왜 교회 공격했는지 모르겠다”

27일 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와 소요 사태로 인해 인근 베트남 침례교회 건물이 불에 탔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교회의 필립 팸(Philip Pham) 담임 목사는 그날 밤 교회 주변이 화염과 소방차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 친구의 전화로 통해 처음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팸 목사는 “그들이 왜 우리 교회를 공격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지붕에 가연성 화학물질을 던졌고, 지붕을 통해 번진 불이 아래로 내려갔다”면서 교회 시설이 “완전히 전소됐다”고 밝혔다.

팸 목사는 교회가 2005년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평일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민 서류와 세금 문제, 결혼 상담 등을 도와 왔다고 밝혔다.

팸 목사는 교회가 15년간 도와 온 수백 명의 주민 정보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 3개를 교회에 보관했고, 화재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하드 드라이브가 무사하기를 기도했다고 밝혔다.

팸 목사는 “라우터와 모뎀,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를 둘러싼 물건들이 모두 타서 녹아 내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하드 드라이브에는 전혀 해가 없었다”고 회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를 아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로니 플로이드(Ronnie Floyd) SBC 집행위원장은 화재 사실에 대해 “몹시 슬프다”면서 “지역 사회를 재건하고 섬기고자 하는 팸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무분별한 폭력에 사로잡힌 그들의 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터 야네스(Peter Yanes) SBC 집행위원회 아시아계 미국관계 상임이사는 화재 직후 팸 목사와 통화하고 교회 성도들이 불에 탄 건물 잔해에 모이는 동안 전화로 기도했다고 밝혔다.

야네스는 “교회 성도들이 진정 좌절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넘어서는 더 높은 목적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기원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에 따르면 26일 신고를 받은 총독한 경찰관들은 24세 흑인 남성인 월터 월리스 주니어(walter wallace junior)에게 들고 있던 칼을 내려 놓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고 그는 결국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자 다음날 도심에는 과격 시위와 약탈로 이어졌으며 시 당국은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유진 김 기자

750만 한인디아스포라 연합 1.1.1 부흥기도 운동 시작

지난 1일부터 미국 재부흥 운동 시즌 2의 일환으로 750만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가 함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1.1.1 부흥기도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기도운동을 이끌고 있는 미국재부흥운동 및 국제도시선교회(ICM) 대표인 김호성 목사는 1일 방송을 통해 “역사적인 1.1.1 부흥기도운동을 선포한다”면서 “지금의 시대는 역대하 7장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김 목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은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회는 문을 닫고 경제는 무너지고 코로나의 두려움이 뒤덮이고 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다”면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매일 오후1시 1분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크게 역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1 부흥기도운동’ 기간 중에는 각국의 50명의 강사들이 매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기도제목을 제시하게 된다. 첫 째날 순서를 맡은 김호성 목사가 제시한 기도제목은 ‘이 세상에 대부흥이 오도록이다.

국제도시선교회(ICM)와 미국재부흥운동은 그 동안 맨하탄 집중 전도를 비롯해 미동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적 재부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사역 영역을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로 확장했고, 현재 북미주,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과 아시아까지 연결해 이번 ‘1.1.1 부흥기도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이번 기도운동은 미국재부흥운동, 국제도시선교회(ICM), 미동부-뉴욕성서화운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조찬기도회와 세계성서화운동이 후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기도제목



1.1.1. 부흥 기도 운동 본부 대표인 김호성 목사가 기도운동 첫날 기도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 CTS 영상 캡처

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매일 전달된다. 김대원 기자

정령의 세상
EX 한국도로공사

틀린그림 찾기

안전벨트 미착용 시 착용 대비 사망 위험이 26배 증가합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기선교여행 막 내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미션파트너스,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 ‘단기선교 포럼’ 열려(중)

한국교회의 연례 선교 이벤트인 해외 단기선교여행(이하 단기선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에 중단됐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확산 수준이나 보건으로 체계, 방역 능력 등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단기선교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코로나 시대, 단기선교는 끝났는가’라는 주제로 30일 유튜브, 줌으로 열린 단기선교 포럼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해오던 방식의 단기선교는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점도 있었지만, 문제와 한계도 뚜렷한 한국교회 단기선교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를 꾀하는 관성에 의해 모두가 주저해 왔다면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션파트너스와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가 8월 8일부터 20일까지 구글 비데오 실명으로 조사한 ‘코로나 시대와 단기선교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에는 단기선교 일반 참가자(성도) 225명, 목회자 및 선교담당자 81명, 선교사 99명 등 총 405명이 참여했다. 김진현 간사(GAIN KOREA), 이영학 간사(미션파트너스),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황예레미야 선교사(그나라선교회 대표)는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선교 참가자, 지역교회 목회자, 현장 선교사 세 그룹에서 각각 10여 명과 수차례 토론회를 연 후 분석과 평가 자료를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선교 정말 끝났나=단기선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는 질문에 대부분(약 66%)은 ‘아니다’(일반 참가자 응답자 225명 중 151명, 목회자 응답자 81명 중 53명)라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단기선교를 갈 수 있으며, 방법적으로 다른 형태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온 답변이다. 응답자들은 기존 한국교회의 단기선교는 ‘선교사를 돕는 형태’로서의 단기선교가 50%를 넘는다고 답했고, 일반 참가자 응답자의 62%(응답자 223명 중 139명)는 코로나로 이러한 형태의 단기선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발표자들은 이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단기선교는 끝났다”고 분석했다.

◆일반 참가자에게 단기선교란=일반 참가자들이 말하는 단기선교는 단편적인 해외 선교 현장 방문이 핵심이며, 파송 혹은 협력선교사들을 돕는 것이었다. 일반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의 단기선교를 ‘선교사의 협력’(225명 복수응답 중 138명, 61.3%), ‘전도 등 현장사역’(132명, 56.7%)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발표자들은 “그 사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선교사 혹은 선교지를 도왔다고 볼 수 없다”라며 “많은 경우 현지의 필요보다 교회가 준비한 사역을 쏟아내고 오는 일방적인 선교, 선교를 경험하는 체험 위주 단기선교 프로그램이 구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 참가자들은 단기선교의 미흡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우리 중심의 선교’(응답자 223명 복수응답 중 135명, 61%), ‘같은 패턴의 선교’(135명, 60.5%),

‘비전트립’(110명, 49.3%), ‘선교 준비 미흡’(34명, 15.2%)을 꼽았다. 목회자 및 선교담당자들은 ‘우리 중심의 선교’(응답자 79명 복수응답 중 50명, 63.2%), ‘같은 패턴의 선교’(48명, 60.7%), ‘비전트립’(24명, 30.3%), ‘선교 준비 미흡’(13명, 16.4%)이라고 답했고, 선교사들은 ‘우리 중심의 선교’(응답자 94명 복수응답 중 57명, 60.6%), ‘비전트립’(38명, 40.4%), ‘같은 패턴의 선교’(37명, 39.3%), ‘선교 준비 미흡’(24명, 25.5%)을 꼽았다.

◆목회자에게 단기선교란=목회자들에게 단기선교는 선교사 중심으로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교인, 교회의 신앙훈련과 성장 기능에도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해외 방문에 대한 정부 입장과 교단의 결정사항을 기다린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발표자들은 “목회자들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거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상황이 유지되더라도 앞으로 단기선교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단기선교에 나설 의향을 내비쳤으나, 다른 형태의 단기선교를 고민하려는 적극성, 주도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교사에게 단기선교란=선교사들도 단기선교를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 인식했다. 아울러 일반 참가자나 목회자와 달리 단기선교 사역의 대부분 요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여전히 단기선교팀을 보조적인 역할에만 국한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발표자들은 “단기선교팀이 전략적으로 준비되어 오길 원하지만, 현장 사역의 필요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더 선호한다는 양면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은 필요한 단기팀 영역으로 ‘교회학교’(응답자 95

명 복수응답 중 50명, 52.6%), ‘찬양팀 관련’(41명, 43.1%), ‘상담 등’(28명, 29.4%)을 원했고, 추후 단기팀을 받을 시 팀 구성은 ‘다수’(응답자 99명 복수응답 중 41명, 41%), ‘소수’(34명, 34%), ‘상관없다’(24명, 24%)라고 답했다.

◆단기선교, 이대로 괜찮은가=발표자들은 단기선교의 가치는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재 단기선교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단기선교 현장에서도 이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사회와 연결성을 가지고, 개인 구원 차원이 아닌 지역의 총체적인 변화를 도울 수 있는 기능적 준비가 요구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참가자, 목회자, 선교사 세 그룹 모두 선교 자체에 대한 근본적 시각이 수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를 시점으로 국내 다문화 사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거나 소수 전문가 중심의 단기선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등 전격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어느 구성원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선교 단점에도 왜 변화 어려웠나=선교사는 일회성으로 오는 팀에게 장기적인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기 어려웠고, 사역 방식에 대해 한국 측과 상호 투명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단기팀 입장에서는 단기선교 프로그램 자체의 일회적 성격에 따른 지속성 부족, 준비 기간의 부족 등의 원인이 있었다. 단기선교에 대한 이해, 철학,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대로 없는 선교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가 인솔하는 단기선교는 일회적이고 좁은 사역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 상황이 한국교회 단기선교에 주는 메시지는=발표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단기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전 방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기회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른 방식의 선교로 전환은=일반 참가자는 향후 기존 장단기 선교보다 국내 이주인 사역에 더 무게를 실은 반면, 목회자는 선교사 케어, 기도회 진행 혹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등으로 대응한다고 대답했다. 선교사는 방향 전환보다 이전 사역의 재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발표자들은 이주인 사역에 대해 “이주인 사역과 기존 단기선교는 이론적으로 비슷할 수 있으나 지역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개념”이라며 “어떤 교회는 이주인 사역을 해외선교가 아닌 국내 목양 사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내 외국인 사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단기선교에도 ‘소수의 전문인 선교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대부분 교회가 예배 중단 등 교회 내부적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선교는 차선으로 밀려났다. 또 교회들은 단기선교에 대해 파송 및 협력선교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대신,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하거나 선교훈련, 선교기도회, 선교 헌금 특별 모금, 구호 및 사역 지원 물품 보내기 등 활동을 진행했다. 국내 외국인 사역에 뛰어든거나 사역 단체를 돕는 교회들도 있었다.

◆앞으로의 단기선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선교의 새 부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표자들은 가장 먼저 “교회가 현장 선교사들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동으로 중장기 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세워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난 후 “선교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선교적 도전을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더 이상은 나가고, 나가서 할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선교 자체를 공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단기선교가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현장의 필요에 따라 기획되어야 하며, 이는 온라인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들은 “전문사역팀을 꾸려 현장 필요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기간과 인원에 더 이상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으로는 “단기선교가 중장기 선교사 발굴의 기회이기도 한 만큼, 열매를 몇 개나 맺을지 알 수 없는 씨앗처럼 가성비를 따질 사항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발표자들은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이해와 목적을 가진 단기선교 참가자, 목회자, 선교사 간의 목표, 목적, 방향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와 교회 간, 교회와 선교단체 간 연합을 통한 통합적 선교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문성을 지닌 선교단체와 자원을 지닌 교회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한 목표를 향해 강한 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위기 또한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희 기자

베트남 몽족 가정교회, 예배 및 모임 금지당해

성도들 폭행하고 정부 보조금 끊고 구호품 지급 안 해 집 찾아가 수확물 불태우고 소 도살 등 재산 파괴도

베트남 몽족 가정교회가 마을 당국자들과 주민의 폭력과 차별, 재물 파괴 등의 압박과 함께 교회 활동을 금지당해 기도가 요청된다고 한국오픈도어가 지난 28일 밝혔다.

베트남 여인 아이는 2004년 병을 고치기 위해 남편 리엔과 함께 라오스에 가서 치료받았다. 그러나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누군가가 부부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 한국오픈도어는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부부가 교회에 기거할 수 있게 해주고, 밤낮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었다”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의 병이 낫게 되자 부부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했다.

신앙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부부는 열정적으로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

다. 식구들로 시작한 작은 가정교회는 곧 성도가 30명으로 늘었다.

마을과 정부 당국은 ‘아이’ 부부가 막 개종했을 때에는 미묘한 차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한국오픈도어는 “마을 사람들과 당국자들은 먼저 이 부부에게 전통적인 몽족의 정령숭배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부부는 ‘우리는 벌써 개종한 지 한참 됐다. 주님께 고침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다. 주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우리는 신앙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대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주민과 당국자들은 가정교회의 예배를 중지시키고 성도 몇 명을 폭행했다. 또 성도들이 받는 정부의 빈민 보조금을 모두 끊고, 증명서들을 압수해가서 어떤 사회 복지 혜택도 신청할 수 없게 만들었다.

8월에는 베트남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구호품이 이 교회 크리스천 6가정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9월에는 마을 주민이 교회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 재산을 파괴했다. 농사지는 수확물을 불태우고, 소 두 마리를 도살하고 한 마리는 심한 상처를 입혔다. 현재 정부 당국자들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교회 활동을 금지했다.

한국오픈도어는 “하나님의 때에 가정교회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고



베트남 몽족 가정교회 성도들. ©한국오픈도어

록, 어떤 박해도 감당할 수 있는 더 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달라”며 “또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박해의 고난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식량과 같은 긴급한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 회복 그리고 복음통일과 통일선교한국 이루기 위한

52일 느헤미야 철야기도회

유튜브 생방송합니다

유튜브에서 '에스더기도운동'을 검색하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2020.9.18 - 11.8
월 - 목 : 밤 11시
금요일 : 밤 11시 30분
토-주일 : 밤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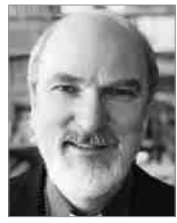
장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문의 02-711-2848



WEA, 신임 사무총장에 토마스 슈르마허 박사 선임

독일 신학자 토마스 슈르마허(Thomas Schirrmacher) 박사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for Theological Concerns)으로 섬기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이전에 종교 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 회원으로 섬겼으며 현재 WEA 신학위원장(Theological Commission)이며 WEA 인권 대사(Ambassador for Human Rights)로 활동하고 있다.

Shana) 박사는 WEA 사무총장 임명 소식을 알리는 서한에서 "슈르마허 박사는 WEA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세계 기독교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데 헌신했다"면서 "그는 WEA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재능있는 인물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토마스 박사가 삶과 역사의 이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WEA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텐데로 주교는 지난 2015년부터 WEA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슈르마허 박사의 임명에 대해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단체를 미래로 이끌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몇 년 동안 WEA 수석 리더십 팀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세계적인 사역에 필요한 성격, 신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하는 은사와 능력을 그에게서 보았다"라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하고 개인, 가족,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힘을 받아 WEA를 인도 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슈르마허 박사는 "임명 소식에 겸손해진다"면서 "오랫동안 리더십의 일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WEA는 내 집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모든 학문적·사회 정치적 참여 외에, 제 신앙의 중심은 항상 각

인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힘이었다"면서 "저는 WEA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수백만 명의 신자들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과 전인자들의 큰 노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안전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WEA 이슬람 문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앤 루벤 대학 이슬람 연구 교수인 크리스틴 슈르마허 박사와 결혼했다. 이명경 기자

美반낙태 그룹·복음주의권 "배럿 대법관 임명 환영"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인준되면서 보수 성향 지도자들과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이를 환영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의 반낙태단체인 '스튜던트프라이프(Students for Life)와 SFLAction의 크리스탄 호킨스(Kristan Hawkins) 회장은 연방대법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을 축하하면서 "알래스카에서 플로리다에 이르기까지 '스튜던트프라이프(Students for Life)와 SFLAction은 미국인들에게 '프로라이프(Pro-Life)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독려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대법관을 임명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의 투여는 배럿 판사 지명을 수용하기 위해 더욱 확장됐다. 왜냐하면 배럿 판사는 사적인 의제보다 법률을 우선하는 법정의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오늘은 법적 영역에서 생명을 보호할 대법관을 지명하려는 수년간의 사업을 돌아볼 때 정점에 해당한다. 배럿 판사는 앞으로 몇년간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할 뛰어난 법학자"라고 평가했다.

조지아 주 개인생활 프리채플 교회 담임인 켈렌 프랭클린 목사 역시 CP와의 인터뷰에서 배럿 대법관에 대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일곱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라며 "그의 딸을 비롯해 어린 여학생들에게 멋진 역할 모델"이라고 차격 세웠다.

그러면서 "상원은 공정하고, 명예롭고, 자격을 갖춘 여성이 미국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깊은 헌신과 축복받은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살고자 하며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딸들과 전국의 어린 소녀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라면서 "우리가 가족과 저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했듯이 지혜와 겸손으로 새로운 자리를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액션(Live Action) 창립자인 릴라 로즈(Lila Rose) 회장은 배럿 대법관 임명을 축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판사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배럿 대법관은 헌법 원전주의자이며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판사들은 역사적으로 헌법이 낙태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럿 판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같은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 희망한다. 어린이를 죽일 권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대법관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임명식을 마치고 발코니에 함께 서 있다. ©White House/Andrea Hanks

헌법에 절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과학은 분명하다. 자궁 속의 인간 생명은 자궁 밖의 생명과 똑같은 인간이다. 헌법은 우리 각자가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궁 속 태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CP는 보도했다.

로나 맥다니엘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배럿 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며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이제 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또 다른 약속이다. 배럿 판사는 법치에 대한 충실함과 원전에 근거한 헌법 해석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C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4년 전 유권자들은 자격을 갖춘 헌법주의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오는 대선 당일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을 다시 선출해 에이미 코니 배럿과 같은 판사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경 기자

"튀니지·프랑스 대통령, 니스 흉기테러 관련 통화"

카이스 사이예드 튀니지 대통령은 10월 31일(현지시간)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프랑

스 니스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에 대해 논의했다고 튀니지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사이예드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폭력과 테러도 단호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전화로 대화하면서 불법 이민과 난민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프랑스 니스에서는 29일 아침에 한 남성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신도들을 흉기로 공격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용의자는 튀니지 국적의 20대로 밝혀졌으며 이 때문에 두 나라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튀니지 대통령실은 밝혔다.

프랑스 니스에서는 29일 아침에 한 남성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신도들을 흉기로 공격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용의자는 튀니지 국적의 20대로 밝혀졌으며 이 때문에 두 나라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튀니지 대통령실은 밝혔다. 차미레 기자

프랑스 리옹서 또 정교회 신부 총기 피습

프랑스 리옹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교회 신부를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국적을 가진 정교회 신부는 이 사건으로 중태에 빠졌다. 그는 이날 오후 4시께 교회를 폐쇄하던 중 두 차례 총격을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앙겔로스 런던 콤팩트 정교회 대주교는 "이번 공격이 슬프고 우려스럽다"면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스 정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은 애도와 기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불과 이틀전 니스 노트르담 성당에서 기도하던 신자 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숨진지 얼마 안돼 일어난다. 앞서 이슬람 신자 무함마드를 다룬 만평을 보도 한 후 극단주의 세력에 테러를 당한 잡지사 사들리 에브도 사건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역사 교사 사무엘 파티가 체제 출산 난민에게 참수된 사건도 일어난 바 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군병력을 기존 3천명에서 7천명으로 늘려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과 학교의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경 기자

존슨 영국총리 "영국, 오는 5일부터 4주간 제2 봉쇄조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주간의 봉쇄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BBC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긴급 내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은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개설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국 정부는 결국 잉글랜드 전역에 제2 봉쇄조치를 재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존슨 총리는 "오는 11월5일부터 12월2일까지 4주간 잉글랜드 전역의 펌, 음식

점, 체육관 등 비필수 사업장은 영업을 중단된다"고 밝혔다. 단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하다. 그는 지난 3월의 봉쇄령과 달리 이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는 수업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구 구성원 중 한 명과 만나는 것이 허용된다. 12월2일 이후에는 봉쇄조치가 완화돼 현재처럼 지역별로 3단계 대응 시스템이 적용된다. 존슨 총리는 "올해 크리스마스는 매우 다를 것"이라며 "지금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크리스마스에) 영국 전역에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자 믿음"이라고 말했다. 권성근 기자



광진구 마지막 2~3억대 아파트

광진 파크프라이빗 PARK PRIVATE

후분양아파트 즉시입주

2호선·5호선 더블역세권

양진학군 학세권

프리미엄 중소형 아파트

천세 대란! 내 아파트를 마련할 최고의 기회

10년만에 찾아오는 선시공 후분양 고품격 아파트

광진 파크프라이빗 PREMIUM

- 1 2호선 구의역, 5호선 광나루역 더블역세권
- 2 명문 양진학군 학세권 + 건국대학교 인접
- 3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체육공원 인접 숲세권
- 4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직접 수혜지역

샘플하우스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04-3



분양문의 1566-4490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가을철 초미세먼지 속
유해성분 증가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코로나에 특고·프리랜서 소득 70% '급감'... 저소득자 타격 더 심각

고용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자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월 평균 소득이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더 큰 것으로 분석돼 정부는 이들을 고용안정망으로 끌어오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 등 입법을 연내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자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고·프리랜서 지급자의 월 평균 소득은 이전보다 69.1% 감소했다. 이는 지원금 지급요건인 소득감소 확인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올해 3~4월 평균 소득과 이전 소득(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특정 월, 지난해 3~4월 중 특정 월)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지난 6~7월 진행된 1차 신청에는 총 175만6000명이 몰렸으며, 이 중 149만명이 지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는 총 58만7000명(33.4%)이며 지급자는 50만명이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보험설계사가 10만5000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교사 2만3000명(3.9%), 대리운전기사 2만3000명(3.8%), 방판판매원 2만3000명(3.8%), 방판교사 1만1000명(1.9%) 등의 순이었다. 이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는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 대상이다.

14개 특고 신청자 중 지급자의 소득을 10분위로 나눠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



지난달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시민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문교사(51.0%), 컨서비스기사(49.6%)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 방문점점원(23.5%), 골프장 캐디(24.2%)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특고·프리랜서 소득이 크게 줄었다

는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지급자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월 소득을 보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연령별로는 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30~40대에서 소득이 70% 이상 감소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75.6%)

는 6분위(55.6%)에 비해 소득 감소율이 약 20%포인트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급자 중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49.0%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80% 이상인 경우도 41.0%를 차지해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고·프리랜서 외 근로형태별 신청자는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무급휴직자는 7만1000명(4.0%)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5.6%)와 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지급자의 46%는 소득 하위 20%에 분포했다. 소득 하위 20%는 분포는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특고·프리랜서(48.0%), 영세 자영업자(4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재각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정망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9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내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 소득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약 80%에 대해 추가 보완 요청이 이뤄졌는데, 이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경우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도 "이들을 고용안정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받은 2차 지원금 지급자 통계분석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강지은 기자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당원 87% 압도적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 결과 86.64%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

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안에 대해 총 투표수 21

만1804표 중 18만3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13.36%였다.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이

번 당헌 개정 투표는 지난 3월 실시된 비례대표 연합정당 추진 전당원 투표(24만1559명 참여, 투표율 30.6%)보다는 낮지만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투표(17만7933명 참여, 투표율 22.5%)보다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 찬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건 재보궐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책 임임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의 처리 등 곧바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중앙위원회는 3일 열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전당원 투표에서 보여준 뜻을 소중히 여기며 당헌 개정과 재보선 선거 준비를 겸손하고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답을 정해놓은 '추진투표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당헌 개정을 통한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다 물었지 않느냐"며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묻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문재인 당헌'을 뒤집는 데 대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당헌 개정도 당원 뜻을 물어 결정했었고 이번 당헌 개정 통한 재보선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전당원 뜻을 물어 결정했다"며 "모든 의사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원에 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 뉴시스

다고 하는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는 이번 투표 결과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주말 실시된 전당원 투표로 이번 당헌 개정은 완료되는 것으로 부처조항에 추가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의 공개 질의에 대해서 "이 대표 표가 누차 사과의 뜻을 전했고 오늘도 그런 뜻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해자가 이 대표의 사과 대상이 자신이 맞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 "다 포함한 사과를 한 것이다. 그 이전에 다 포함해서 사과드렸고,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형 한주홍 기자

野 "與, 몰염치 공천 밀어붙여... 국민 여러분 심판해달라"

"당대표직 건다던 文대통령 어디로 갔나"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데 대해 "추악한 행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공천을 중단하고 국민과 서울·부산시민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 소속 광역지차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절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은 몰염치 공천이라는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준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민주당 당헌에 당 대표직을 걸겠다고 호언장담한 분이 어디로 갔나"라며 "이낙연 대표에게 묻겠다.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대체 뭘 사과는 것인가'라고 절규하는 것은 듣기는 들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추악한 권력연장에만 눈이 멀어서 피해 여성의 절규를 외면하고 서울·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채 몰염치 공천을 강행하려는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838여원이라는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국민에게서 납득할 수 없는 보



김상훈 국민의힘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 © 뉴시스

궐선거 요인에 대해 공당의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린다"며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이자 국민에 대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달라"며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단체장들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 게 온당한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정치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차라리 당헌을 통째로 폐기하고 무당헌, 무법 정당을 선언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비리적 폐 음모당, 성인지 감수성 제로 정당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당의 헌법을 바꾸는 것을 당원투표라는 미명으로 행하는 것이 어디 제 얼굴에만 침을 벨는 것이겠나. 정치에 대한 신뢰, 정당의 책임 정치를 기대한 많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비위라는 중대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의 보궐선거에 또다시 자당 후보를 출마시키는 철면피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필요할 때는 혁신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약속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모습은 분명 민주당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최서진 기자

IBK-항균카드, 너만 있으면 안심!

카드 앞·뒷면 항균필름 코팅

항균성 99.9%로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국민 안심 카드 DailyWith 데일리위드

DailyWith 데일리위드 · 발급대상 : 개인(보안 및 가족) · 브랜드 및 연회비 : Mastercard / UnionPay 1만 2천원, BC(국내전용) 1만원

건강지킴이 · 항균성 99.9%,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전파 방지

생활도우미 · 1% 캐시백(6대 생활영역), 최대 사용 생활영역 1% 추가 캐시백

6대 생활영역 : 음식점(커피), 온라인쇼핑, 마트(편의점), 대중교통(주유), 통신비, 병원비

▶연체이자율 : 회월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 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시, 혜택 제공조건 등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합의 은행 IBK 기업은행

행복 찾기의 시작... '시댁'의 핍박 속 태어난 사내아이로부터



권율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

존재를 변화시키는 '행복 신학'(1) "존재의 탄생"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존재는 단순히 '있음'이 아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있음'이다.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서 그를 존재하게 한 창조주를 향한 있음(beingness)이다. 여기에 행복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창조주는 없을 테니까.

우선 '존재의 탄생'부터 얘기해 보자. 이 글은 철학적인 존재 개념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한 생명이 겪은 팩트(fact)를 가감 없이 소개하면서, 그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보고서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받

아들일 수 없던 그가 어떻게 행복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나는 집안의 가장인데, 허구한 날 니 마누라한테 붙잡혀 살든 어쩌자는 기고?"

"어무이도 참 내가 언제 마누라한테 붙잡혀 살았다는 말이고? 근데 어무이는 뭇 땀에 매일 딸들만 기고 도는데? 아들은 늘 뒷전 아이가?"

"뉘야, 이놈아! 가장인 니가 동생들 돌봐야 할 거 아이가?"

할머니는 언제나 딸들만 편애하며 아들을 무시했다. 그러면 아들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어머니의 이상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리어 자존심을 지키기에 인간됨을 쏟았다.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비겁한 꾸밈을 늘어놓았다. 그러면 여인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붙잡혀 사는 꼴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다.

"여보, 당신은 집안의 가장 아인고? 집구석 피라지를 이대로 지켜보지만 할라요? 질서를 좀 잡으시오! 장독대를 쳐부수든지, 안 그러면 당신 여동생들 귀때기를 때려서라도 가정의 권위를 제발 좀 세우시오!"

"뉘? 이 망할 년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뉘라카는고? 난 이대로는 답답해가 도저히 갈이 못 살겠습디"

부부 싸움은 고부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그 옛날 일제강점기에 고단한 시집살이를 한 할머니는,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만며느리를 날마다 나무라냈다. 할머니 눈에는 만며느리의 시집살이가 성이 차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덩달아 시누이들도, 한 생명을 품은 여인에게 시집살이를 똑바로 하라며 아주 혹독하게 물어볼였다. 심지어 큰 시누이는 자기 집에 밀린 빨래를 모조리 싸들고 와서 말려 놓고, 며칠 뒤에 찾으러 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것도 생명을 위협한, 집안의 만며느리에게 말이다!

하지만 성격이 무뎉뎉한 아들은, 시집 식구들에게 시달리는 아내를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처럼 나무라기만 했다.

"망할 년이 나보고 동생들 귀때기 때리라카디만 그거 참 잘됐구만"

"당신, 정말 내 남편 맞는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노?"

집안은 평안할 날이 없었다. 여인은 거의 속은 상태로 시집와서, 골치 아픈 시집 식구들에게 모

진 서러움과 핍박을 당해야 했다. 남편은 자신심을 세우기 위해 아내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서 어머니한테 데리고 가기도 했다. 아내도 여자한테 붙잡혀 사나고 따지기 위해서이다. 심지어 여인은 남편이 화장에 던진 부엌칼에 얼굴이 관통될 뻔한 적도 있었다. 이처럼 여인이 겪은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있는 지 얼마 후에, 여인은 사내아이를 순산했다. 득남의 기쁨도 잠시였다. 여인은 골치 아픈 집안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앞으로 이 아기의 인생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 주는 징조였다.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존재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창조주를 향한 의미 있는 '있음'이 되려고 합쳐온 곳에서 태어났다. 창조주를 향한 목적 있는 '있음'이 되려고, 통속적인 행복과는 다르게 출생했다. 자기 의지와는 무관한 타자들의 실타래처럼 얽힌 인연과 사연 가운데 내던져졌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행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전능자의 손길은 그전부터 작용하고 있었다. 비록 그가 의식하지 못했는지라도. <계속>

※ 권율 목사는 경북대 영어영문학과(B.A.)와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를 마치고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다. SFC(학생신앙운동) 캠퍼스 사역 경험으로 청년연합순회회와 결혼예비학교 등을 섬기고 있다.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폭력 및 부모 이혼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으로 인생이 '개혁'되는 체험을 했다. 성경과 교리에 관심이 컸는데, 연애하는 중에도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 부산 부곡중앙교회와 세계로병원 협력목사로 섬기면서 가족 전체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는 중이며, 4년째 선교지(몽골, 필리핀) 신학교 집중강의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저서는 <21세기 부흥을 꿈꾸는 조나단>, <울인원 사도신경>, <울인원 주기도문>, <울인원 심계명>이 있고, 역서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영한대조)> 외 2권이 있다.

쓰레기 대란, 지구를 살려라

이효상 목사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해를 거듭할수록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쓰레기 문제다.

필자가 자치위원으로 있는 남양주시가 인천에 매립하는 연간 쓰레기는 총 1,200만톤이다. 이미 초과됐다. 페널티(penalty)가 생각보다 만만찮다. 문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맘대로 버릴 수 있지만 업체가 더 이상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시는 쓰레기 20% 줄이기를 시작했다. 동별로 30%를 목표로 한다.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아이스팩(ice pack)과 스티로폼(styrofoam)의 분리수거이다. 남양주시는 아이스팩 5개를 모아 오면 100짜리 종량제 봉투를 주는 보상 수거제를 실시했다. '아이스팩이 나이스팩(nice pack)'이 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주민센터가 자발적 캠페인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서 전개하며 아파트 카페에 아이스팩 분리수거의 글을 올리는 등 독려하

다보니 다산동이 전국적으로 1위가 됐다.

그렇게 해도 매주 아파트에는 일회용 쓰레기와 플라스틱(plastic)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지고 있다. '쓰레기 대란' 우려는 전 세계이고 전 지구적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음식 주문량이 늘자 일회용품 사용도 함께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하루 평균 848t(톤) 발생했다. 1년 전(734t)보다 15.6% 늘어난 수치다.

버려진 일회용, 아이스팩의 미세분자, 플라스틱 들은 어디로 갈까? 최근 일상에서 마시는 물과 갑각류, 맥주, 소금 등을 통해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횟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생산, 운반, 소각 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 토양을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면역체계를 무너뜨린다. 암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연간 8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흘러간 플라스틱 폐기물 때문에 해양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이 지난 6월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내 부검실에서 바다거

북 해부를 진행했는데 소장, 내장, 대장을 부검한 결과 비닐쓰레기가 나왔다. 이를 동안 진행된 검사에서 바다거북 3마리의 몸 속엔 24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과 호주 뉴캐슬 대학이 올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에 의하면 평균 한 사람당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2000여개를 매주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 플라스틱은 통상 크기가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을 통칭한다.

이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인줄 알고 삼킨 어류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기에 환경호르몬을 배출해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우리도 매주 무게로 따지면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이나 불펜 한 개를 먹는다는데, 한 달이면 첫술 한 개 분량인 21g을, 1년이면 250g이 넘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셈이다.

이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주로 마시는 수돗물을 포함한 식수로, 한 사람당 매주 마시는 물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1769개를 섭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귤류에서 182개, 소금 11개, 맥주 10개 등이 미세 플라스틱 섭취의 경로로 밝혀졌다. 창조 환경문제 깊게 보고 멀리보자. 일회용 쓰

레기와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해양생물을 죽임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인류도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먹지 않으려면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을 자연에 버리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

인류가 촉발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지구가 쓰레기장이 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생성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플라스틱 대량생산 60여년 만에 미세플라스틱 가득 찬 바다, 바다생물은 먹이로 착각해 먹고 인간은 그들을 먹고 그렇게 지구는 '플라스틱 행성'이 되어간다.

환경 파괴로 코로나가 생기고 인간의 복지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 진화적인 환경 정책과 환경을 지키는 노력과 생활 방식을 채택할 듯 싶다. 우리가 받은 세상을 보존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창조 세계의 자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일회용으로 낭비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면 좋겠다. 새로운 상품을 사 냉장고나 집에 쌓아두고 싶은 유혹이나 압박을 거부하는 자족한 삶을 살면 어떨까. 어차피 나그네인생인데 좀 부족한 듯 사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개인의 행동이 큰 영향을 끼치든 말든 상관없이 나머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충실했으면 한다. 나와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것이 에코패밀리(ecofamily)다. '에코패밀리'는 지구를 살리는 환경실천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가족을 말한다. 배운 것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전파하고 모두가 에코패밀리가 되는 것을 꿈꾸어 본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생활 쓰레기를 최소화하며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자발적 주민 참여 환경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음식 배달시 일회용품을 최소화 한다. 시장을 볼 때, 조금 불편할지라도 가게에서 상품을 담아주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거부하거나 장바구니와 일회용 컵 대신텀블러를 사용한다면 환경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과 사업체가 환경 친화적 실천을 채택하고, 창조 세계에 심각하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권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 교회 스스로가 적절한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세계를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만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 시민단체(NGO)들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환경은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행동이다. 지역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다. 또한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될까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쉬 주저하곤 한다. 힘을 내서 시작해야 한다. 가족과 이웃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창조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창조세계의 지킴이로 부름 받은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올바르게 실천해 보려한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희귀질환·암 등 질병에측진단 치료시대 개막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전국 최초로 '1만 명 게놈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식 지정을 계기로 삼아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으로 생명정보분석,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 치료후보물질 발굴 등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에크게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구기간
2020. 7. 6. ~ 2022. 6. 30. (2년간)

총사업비(안)
476.5억원 (국비 255.9억원, 지방비 199.7억원, 민자 20.9억원)

특구 사업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UNIST,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11개 바이오·SI기업

위치/면적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등 6개 지역 (총면적: 1.198km²)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기관위원회(IRB) 심의, 익명화된 정보 제공, 인체유체물은행 설립, 분장심사위원회 구성,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심혈관질환, 우울증질환, 배양민감질환 진단마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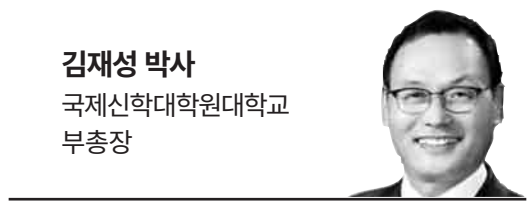
감염성질환 진단마커 대응 유전체 분석·후보물질도출 지원 플랫폼 구축
「조기진단, 치료후보물질 도출지원」

경제효과

사업기간 이내 생산유발 774억원, 고용유발 396명, 창업 및 기업유치 9개사

10년 이후 총사업비 476억원의 100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츠빙글리의 역병기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3. 츠빙글리의 역병기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츠빙글리(1484-1531)는 베른 대학을 졸업하고 바젤 대학교에서 인문주의 수학을 통해서 당대 기독교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게 되었다. 1505년에 신부로 서품을 받았고, 글라루스에서 십 년을 사역하면서 용병들의 사제가 되어 프랑코-이탈리아 전쟁에 참여했다. 1515년에는 스위스 용병들의 회생이 컸던 마리아노 전투 현장에 있었다. 그 후로 로마 가톨릭 귀족들이 교황청과 결탁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던 용병제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가 가장 큰 도시 취리히 교회의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헬러 성경을 연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라틴 교부들의 저술들을 참고하여 성경에 근거하는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을 제시하였다. 1519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취리히 교회에서 신약성경을 차례로 설교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었다.

“민주의 사제”라는 직책을 받아서 츠빙글리가 취임한 후 불과 몇 달이 지난 뒤, 1519년 8월에 흑

사병이 도시 전체를 강습했다.
3.1. 성경에서 발견한 인생의 제한성
 현대와 같은 의학적인 지식과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검은 색 죽음”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스위스 국민들을 공격했다. 취리히 시에서 9월 중순경에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최소한 당시 인구의 사분의 일이 회생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생명을 보전 하려는 싸움을 해야만 되었다.

그 다음 해이던 1520년 봄에야 감염병이 줄어들었는데, 대략 7천 여 명이 사망했다. 당시 취리히 주에 살던 인구는 약 5만 명이었는데, 도시 안에 살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도 사망했다. 그 중에는 츠빙글리의 친동생 안드레아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너무나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다가 전염 되었다. 츠빙글리 자신도 환자들을 돌다가 감염병을 피할 수 없었다. 심지어 츠빙글리의 장남 윌리엄은 이 무렵에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딸리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수학을 하던 중에 그 도시에 창궐했던 흑사병에 걸려서 사망했고, 스위스 바젤의 종교개혁자 요한네스 외롤람파디우스의 아들 (Euzebe)도 죽었다.

전염병이 취리히 시에서 물러간 후, 츠빙글리는 1522년에 아들 한 명과 두 딸을 가진 과부 안나 (1487-1538)와 결혼했다. 안나와 츠빙글리 사이에서는 네 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1525년에 태어난 장녀 레굴라는 취리히 시의 위대한 신학자 볼링거

의 양자 (Rudolf Gualther)와 결혼했는데, 훗날 그가 신학자들의 가업을 계승하여 목회자가 되어서 취리히 교회의 담임목사로 활약했다. 츠빙글리의 장남 윌리엄은 1526년에 태어났는데 15세가 되던 1541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흑사병에 걸려서 사망했다. 이런 상황을 그 당시 칼빈이 현장에서 목격했었다. 셋째 아들 윌리엄은 1528년에 태어나서 43세에 이르러 1571년에 사망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취리히에서 활동했다. 막내 아들은 1530년에 태어났으나 어려서 사망했다.

츠빙글리는 “흑사병에서 부르짖는 간구” (Pest-tied)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이자 구원의 하나님께 처절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열심히,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매달리다가, 1519년 9월에 흑사병에 걸렸다. 그 이전에 몇 달 동안,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하자고 외쳤던 설교자가 갑자기 무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츠빙글리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다. 그가 흑사병과 싸우면서 지은 간구들은 처절한 기도문 형식으로 남았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주시옵소서! 제 생각으로는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저를 정복하셨습니다. 당신께, 제가 부르짖나이다. 만일 이것이 당신의 뜻이

라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이것들을 떠나내 주옵소서,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안식을 주시든지, 평안을 주옵소서. 하오나, 나의 날들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대로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든지, 제게는 재나친 것이 아니옵나이다. 지으시든지, 아니면 깨뜨리든지, 나는 당신 빛으신 그릇이옵나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어진 그릇이라는 비유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등장한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롬 9:20).

다시 말하면, 츠빙글리는 성경 안에서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에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이심을 재인식했다. 지독한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츠빙글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그의 성경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츠빙글리는 그동안에 한 사람의 인본주의자로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깊이 받아왔었는데, 진실로 성경을 다시 인식하여 종교개혁자로 나섰다는 의미이다. 츠빙글리는 당시 스위스 인본주의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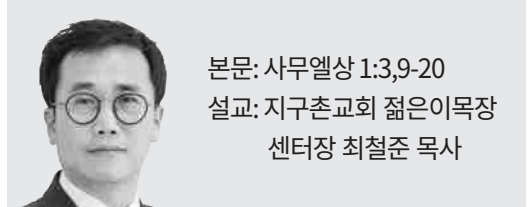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에서 결정적으로 두드러진 점은 성경의 절대 권위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는 사실이다. 로마 가톨릭의 모든 오류를 벗어나게 안목을 열어준 것은 깊은 성경연구에서 나온 것들이다. 츠빙글리가 1520년부터 계속해서 거듭되는 논쟁들과 토론에서 빛나는 종교개혁의 안목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1519년 1월 1일부터 마태복음을 강해설교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의 주된 내용들은 에라스무스와 같아서, 종교개혁을 일종의 교육의 과정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츠빙글리는 취리히에서 인문주의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2천여 명 안팎에 이르고 있어서, 계속해서 계몽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었다.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를 받는 삶이라는 기독교 철학체계를 발전시켰는데, 도덕적 윤리적 중생과 생활의 개혁이었다. 츠빙글리가 취리히의 초기 목회에서 개혁사상으로 제시했던 도덕적 갱신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려면 교육적인 식견을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작동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면 타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에라스무스가 제시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1524년에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에 벌어진 자유의지론 논쟁을 알게 되었다. 결국 츠빙글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성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시 파악하게 되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III)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본문: 사무엘상 1:3,9-20
설교: 지구촌교회 젊은이목장 센터장 최철준 목사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려움 중에도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더불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술에 취했다고 말한다. 나갔으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보라. 15절에 엘리 제사장을 “내 주여” 라고 부른다. 엘리를 자기 주인으로 높이고 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18절). 한나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제사장을 주인으로 높이면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대목이 있다. 18절 하반 절에

보면 한나가 엘리의 말을 받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고 말한다. 엘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한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리고 나서 열가나와 한나는 동침했다고 한다. 아마도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동침했을 것이다.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기도하며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4개월간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가? 느헤미야처럼 한 가지 기도제목과 품고 4개월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도제목과 품고 오래 기도하면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며 동기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성경

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나,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새벽예배 후에 안수기도를 헤드린 적이 있다.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기도 헤드린 성도님들이 오셔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제가 자녀 위해 기도 부탁했는데 자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사업이 어려워 기도 부탁 했는데, 지금 주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내 기도가 위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정진홍씨가 쓴 “사람공부”라는 책이 있다. 성경화, 요요마, 조슈아 벨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다 최고의 경지에 선 음악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라디 바리우스를 쓴다는 점이다. 스트라디 바리우스는 3세기 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가 만든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를 말한다. 줄여서

“스트라드”라고 말한다. 현시대에 존재하는 최고의 명작이다. 스트라디 바리가 만든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는 약 1000개가 넘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실제 연주 가능한 악기는 300여 개에 불과하다.

스트라드 바이올린이 명작이 된 것은 공명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명은 나무 재질에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사용했는지 봤더니 가문비나무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가문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공명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한다. 공명이 잘 되는 좋은 나무와 장인의 뛰어난 기술이 만나서 명품 바이올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기후학자인 “로이드 버클”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스트라디 바이올린에 사용된 목재가 다른 나무들보다 공명이 잘 되는 이유를 밝혀내게 되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14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소빙하기가 있었다고 한다. 나무가 보통 때는 곁이 느슨하게 되는데 추우니까 모공이 촘촘해졌다고 한다. 오래 지속된 긴 겨울과 서늘한 여름에 성장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음향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올린 자체로서 최상의 나

무가 되었다고 말한다.

스트라드 바이올린이 어떻게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평범한 나무였던 가문비 나무가 빗겨가는 긴 겨울을 만났기 때문이다. 혹독한 겨울과 추위가 가문비 나무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했지만 그 빗겨가는 잘 통과하니까 평범한 나무가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중에도 가문비나무처럼 인생의 빗하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한없이 지속될 것만 같은 빗하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기억하라. 가문비나무가 최고의 장인을 만나면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으로 태어난다. 우리 인생도 코로나라는 혹독한 고난 앞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도 명품 인생으로 거듭날 줄 믿는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다. 인생의 기적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예배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는다.

'서울 중구' 중심 업무 지구 업무용 섹션 오피스텔 공급

주택수 미포함

※ 업무용 사용시 적용

◆ **공급 개요** (※1인 3호실까지만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사업명	남산 센트럴시티 투웨이퍼스트 업무용 섹션 오피스텔 신축사업		
공급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C본사 · 세운재정비혁신지구 바로 옆		
대지 면적	824.20㎡	연면적	6,232.39㎡
건축 규모	지하1-지상18층, 업무용 섹션 오피스텔 200실		

◆ **청약 및 계약 신청자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 거주 제외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의 중복 세대가 있는 경우 입금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주 지역이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과는 무관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본인 청약 신청 시 (배우자 포함)	청약 신청서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본인 인감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의 경우 청약자의 도장 자함)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가 제출 (동일세대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계약 신청 시 (배우자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약금 납입 (청약 신청금은 1호실 당 100만원입니다.)**

청약금	입금은행	입금계좌	예금주명
100만원	새마을금고	9002-1936-5137-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서울 외 지역 고객 또는 당일 방문 접수가 어려운 고객님은 전화 문의 후 별도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분양금 납입 절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	60% 무이자	30%

◆ **청약 및 계약 장소 (청약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문의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청약 계약	계약 신청 장소
중 · 후속 선착순 지정 청약	남산 센트럴시티 투웨이퍼스트 홍보관

◆ **업무용 사용 시 분양 세계 혜택 (일반 임대사업자 적용)**

주택수 미포함

취득세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출규제
無

청약통장
사용가능

※ 일반 임대사업자 업무용 사용시에만 적용 (2020년 9월 기준)

◆ **주변 교통 환경 (초역세권)**

퀵드러플
역세권

2·5호선
을지로
4가역

2·4·5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3·4호선
충무로역

다수
버스노선

◆ **주변 100대 기업 본사 및 관공서 현황 (사업지반경 약2km이내)**

SK

SK

SK

SK

SK

SK

SK

SK

SK

SK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 중구, 용두구 소재 대한민국 100대기업 명 (자료 : CEO스코어데이터 / 2020년 6월 10일 기준)

분양문의

1600-7094

※ 분양 문의 전화 후 예약 방문 시, 백화점 상품권 및 사은품을 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정교분리 원칙, 기독교적 자세

브리콜라주 인더무비

미국 대선에 대한 단상(上)

◆교회와 대통령: 한국 개신교계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

미국 대선 투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지난 14일부터 2주 넘게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언론에서는 박빙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 대선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동북아 정책이 우리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군사, 외교, 경제 정책 전반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하는 한국 정부에게 있어, 그리고 그 정책에 우리의 생존을 내걸고 있는 한국 국민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덜 침해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국 기독교인들이야 당연히 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조금이라도 더 존중하는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일 것이다.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만 아니라 문화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행정수반과 내각이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우리 일상에 전해지는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 역시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성을 띠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에서 한국 개신교계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계속되는 허언들과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 바이블벨트의 압도적인 지지를 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독교 윤리와 가치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국 개신교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러닝메이트인 펜스 부통령의 확고한 기독교 윤리관 역시 이런 추세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커다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의 보수정권에 대한 한국 기독교계의 응원과 지지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라는 진영 논리가 끼어드는 것이다.

사실 이런 오해는 한동안 한국 기독교계 내에 지배적이었던 민족주의 성향, 반공주의 성향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성향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만 매도할 수는 없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 기독교회는 만주, 간도, 북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신앙의 터전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하고



한국 개신교계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페이스북

문과 학살로 희생된 기억을 갖고 있다.

휴전협정 직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개척된 교회 다수는 이 비극적인 체험을 간직한 피난성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영락교회가 대표적이다.

이 교회들을 개척한 목회자들이 설교단에서 민족 통일과 반공 사상을 강조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자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의도적인 장려와 지원이 한몫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계 내에 하나의 폐단이 싹트게 된다. 바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정서가 목회자들 사이에 고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교회와 권세자: 성경적 절제가 필요한 기독교인의 권세자 판단

이런 폐단이 한국교회에 쉽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또다른 이유는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의 개혁주의 신학 편향을 들 수 있다.

독일 루터교 신학이나 웨슬리의 감리교 신학과 달리 칼빈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와 권세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소 모순적이라 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한다. 칼빈 신학은 기본적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칼빈 본인의 제네바 목회는 정교일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기독교 강요> 안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문제가 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1절에서 철저한 정교분리 원칙을 선포한 뒤, 20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진정한 종교에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모독을 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부를 시인한다.”

이 진술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의 정교분리 원칙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칼빈 본인은 제네바 시수석 목회자로서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것은 칼빈 본인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에 사실상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칼빈은 그 정도의 영향력 없이 종교개혁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당대의 현실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권세자 역할을 맡았던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기독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 그리고 제네바 시에서 칼빈의 실제 목회 방식은 기독교 세계가 확립되어 있는, 이제 막 중세를 벗어난 서유럽의 특수한 사정을 심본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이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한 모범적 목회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적 목회 행태를 답습할 수 있는 환경이 휴전 직후 이승만 정권 하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방적 기독교 옹호 행태는 한국의 기독교회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지만, 한국 목회자들에게 정교분리 원칙을 묵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이런 폐단이 오늘날까지 고착되어 문제시된 대표적인 사례로 전광훈 목사의 여론몰이를 들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정사와 권세에 소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하고 바람직하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양심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계에 뛰어들어 사회변혁을 꾀할 수 있다. 19-20세기, 인종차별 철폐와 노예 해방, 여성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활동



제네바 바스티옹 공원에 세워진 종교개혁자 석상. 왼쪽부터 파렐, 칼빈, 베자, 녹스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을 모범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기독교회를 지원했던 그의 행적은 훗날 한국교회에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게 만드는 폐단을 낳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주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그것도 자기 교회 회중을 선동해 정치세력으로 변질시킨 전광훈 목사의 행각은 정교분리 원칙에 전적으로 어긋난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무모하게 집회를 강행해 한국교회 전체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헛되게 만들며 어버린 우매함과 그의 비성경적인 허언들은 철저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광훈 목사의 투쟁 활동을 비기독교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회자는 설교단에서 정사와 권세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감행할 수 있는 성경적인 권한을 갖지만(고전 6:2) 직접 정치 행동을 나서지는 않는다. 이는 목회에 헌신해야 하는 자임의 한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기독교인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려 한다면, 평신도로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임명 혹은 선출) 정계에 진출해 활동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모범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한 한국 개신교계의 전반적인 정서와 반응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 안팎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오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정권이 단지 보수 정권이기에 맹목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일정 부분 정책에 반영시켜줄 소지를 보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지지하고 기대하는 정서와 행태가 성경에 정해진 정교분리의 원칙적 기준을 넘어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 거부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역사적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경제적으로 별다른 실책이 없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각종 경제 지표들을 양호하게 지켜낸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지 언론의 분위기로는 바이든 후보의 압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누가 당선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권세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절제된 지혜를 갖추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박옥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학)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 한우지조금관리위원회

이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한우먹는날](#) 검색하세요

11월 1일

※ 행사기간: 11월 1일 ~ 2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영수증이벤트 참여하기

응모 바로가기

01 EVENT **한우를 구입한 1101명에게 쏜다!**
한우를 구입한 영수증과 한우고기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2 EVENT **한우FLEX 이벤트**
#11월1일 #2020대한민국이_한우먹는날 #한우FLEX

03 EVENT **※한우사랑상품권 20%할인 판매**
제로페이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가능

종교개혁자 칼빈과 ‘마음과 믿음’



이경섭 목사
인천반석교회
개혁신학포럼대표

개혁주의에서 마음의 위치와 역할

‘마음’이라는 뜻의 헬라어 ‘καρδιά’와 ‘νοῦς’는 때론 ‘정서’와 ‘열정의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생각’과 동일시되기도 한다(빌 4:7). 때론 ‘온 정신적인 상태나 ‘생각의 방법’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분별 있는 이해, 진실, 의지, 애정’ 등 자정의(知情意)의 의미를 다 아우른 ‘복합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칼빈(John Calvin) 역시 마음의 기능을 ‘복합적’인 동시에 ‘부분적인’ 것으로 보았다. 곧 ‘정신과 육체의 신비한 통일체인 인간이 의존되어 있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본 동시에, 전통적인 ‘인간성의 기능들 중 한 부분’으로 보았다.

그는 때때로 마음을 ‘애정 또는 영혼의 지적(知的인) 부분’으로 정의했다. 또 다른 경우엔 ‘천상의 가르침으로 교육받고 난 다음 내적으로 세로위 지게 하는 법이 위치한 곳’으로 정의했다.

칼빈이 이처럼 ‘마음’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그가 마음을 다만 ‘지성’ 혹은 ‘정서의 기능적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며 신앙이 생생하게 체험되는 곳으로 이해한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을 중시하는 이런 그의 입장과 더불어 ‘스콜라주의(Scholasticism)’에 대한 그의 경멸, ‘기독교의 여러식음’에 대한 그의 칭송은 간과할 수 없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의 이지적인(理智的) 면만 보고 그를 차고 메마른 주지주의자(主知主義者)로 매도한다.

◆전인(全人)이 의존된 생명의 원천

칼빈은 마음이 동원되는 곳에서만 인간의 전존재적 의미가 살아난다고 보았다. 이는 그의 전기 작가 부스마(William Bouwsma)가 ‘칼빈의 시편 119편 98절 주석’을 분석한 내용에서 잘 나타난다.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들을 차갑게 철학화하지 않고 진지한 애정을 갖고 이러한 가르침들에 자신을 내어맡긴 다윗은 칼빈에게 이러한 지식의 본모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것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존재 전체로 무엇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드러 내 주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머리의 지식인 철학적 지식’과 ‘전(全)존재적 지식인 마음의 지식’을 구분함으로써 사변적인 주지주의에 대한 경멸을 나타냈고, 인간 존재(human being)를 결정짓는 중추로서의 ‘마음’의 위치를 부각시켰다.

또한 마음은 ‘지식’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생명’이 의존되어 있는 곳이며,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이 교차하는 곳이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머 무는 곳인 반면, 사용 방향에 따라 마음은 감음,

살인 등 온갖 악의 원천이 된다(롬 1:28-32).

이러한 생명의 원천인 마음(잠 4:24)은 기독교 영성에서 제일 먼저 주목받아야 할 부분이다. 마음을 소홀히 하고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의 비침을 얻어야 하는(히 6:4) 이 중요한 곳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없다.

16세기 청교도 목사 피터 모팻(Peter Mofat)이 “당신의 생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 당신의 양떼를 먹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먹이는 데, 당신의 집을 지키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주의를 기울여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더 핑크(A. W. Pink, 1886-1952)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마귀적이라고까지 말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별들의 운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사람들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 마귀이다.

모든 일 중에 마음의 일이 가장 어렵다. 험령하고 부주의한 정신으로 종교적 의무를 해내는 것에 큰 수고가 들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험령하고 헛된 공상들을 끊임없이 진지한 그에 대한 관심 관습에 묶는 일에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머리와 가슴의 종교

흔히 사람들은 냉철한 ‘지성(intelligence, 知性)’의 상태 개념으로 ‘마음’을 말하는데, 이는 ‘마음’을 ‘정서(emotion, 情緒)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로 나아가야 하고, 예지(微智)가 번득이는 ‘지성의 사람’이 되려면 냉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선입견이 ‘마음’과 ‘지성’을 대립적으로 놓았다.

그래서 고도의 ‘지적 탐구력’을 요구받는 자연과학자들에게는 ‘정서적 작업인 음악, 미술, 문학’ 같은 예술 분야에 둔감한 것이 당연시되는 반면, 주로 정서를 바탕으로 일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지적 논리를 요구하는 자연과학에 서툰 것이 당연시된다.

그러다 혹 공학도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음악가가 논리학과 수학에 재능을 보이면, 아주 특이하게 여긴다. (물론 이는 개인차와 함께 중등학교부터 문과 이과로 나뉘, 학문을 지나치게 이분화 하는 교육 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분법(二分法)은 신앙세계에도 그대로 통용되어, 교인들을 ‘지성적인 신자’와 ‘감정적인 신자’로 양분한다. 그러나 주지하듯 ‘지성과 정서(마음)’는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有機的)이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자정의의 균형 잡힌 인격’으로 창조했다. 그러나 타락 후 그 균형이 깨어졌고, 개인의 기질과 편향성에 의해 더욱 그 쏠림이 심화됐다.

기독교가 ‘지성을 우위에 둔다’ 해서 중요한 은사

(恩賜인 ‘마음(정서)’의 기능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이는 ‘전인적 영성(holistic spirituality)’ 원리에도 위배된다. 칼빈은 믿음의 정서에서 ‘머리와 마음의 연합’을 강조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과 믿음에 있어, 단지 ‘지성’ 혹은 ‘감정’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은 전인적 열정에 불탔던 사람들이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758)가 당대의 차갑고 말라 빠진 ‘주지주의(主知主義) 신앙’을 비평하면서 “진정한 신앙은 머리의 종교가 아니고 가슴(마음)의 종교여야 한다. 진정한 덕과 거룩은 머리보다 심장에 그 자리가 잡혀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정의의 유기적으로 아우름

인간을 논할 때 흔히 심리학자는 ‘인격론적’으로, 철학자는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인간을 주로 자정의적 존재로, 후자는 마음(혹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접근한다. (그리고 자정의의 ‘마음’에 포함시켜 전자보다 포괄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인격론적 입장인 존재론적 입장인, 유기적인 ‘자정의’는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구분 짓기 어렵다. 이러한 유기체적 인식(Organismic Understanding)은 역시 칼빈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는 ‘자정의의 계층구조를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을 엄격하게 구별 짓기를 거부했다. 그는 심지어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별하는 것”마저 마심쩍게 여겼다. 이는 인간을 ‘포괄적 관점’에서 보는 그의 입장 때문이다.

오늘 일부 영성 이론은 사람을 전인적·통합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정의의 분리시켜,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인간을 ‘영육(靈肉)으로 구분지어 그의 ‘영(靈)’이 어떻다느니 ‘육(肉)’이 어떻다느니 하며 인간의 ‘전인성과 유기체성’을 훼손한다.

또 ‘감정의 문제는 홀로 감정만의 문제가 아닌, ‘지성과 의지의 유기체성’ 아래서 된 ‘전체 마음’의 문제이다. 환언하면 ‘마음’이란 단지 ‘지성’이나 ‘의지’만도 아니고, 단지 ‘정서’나 ‘감정’만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이해, 진실, 의지, 따뜻함, 애정’ 등 ‘자정의의 포괄적 의미’ 외에 모든 내면적인 것들의 총체이다.

심지어 ‘마음’은 ‘육체’와도 유기체적으로 상호 교호(Interaction)한다. 다음의 성경 구절은 그것의 상징처럼 보인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

사람들의 감정 행사의 미숙함, 태도의 경직됨, 지나치게 비판적(negative criticism)이 됨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유기체성 훼손과 그로 인한 편향성의 심화 때문이다.

성숙한 영성은 자정의의 균형을 유지한다. 사물에 대해 냉정한 분별력을 가지면서도, 경직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누구를 ‘판단(고전 5:12)해야 할

경우에도, 그것이 ‘비난(눅 6:37)’으로 흐르지 않도록 판단에 온기가 깃들어 있다. 그리고 기쁜 일, 슬픈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에 지나치게 도취되지 않고 적절한 분출과 통제력을 갖는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마음 종교’

‘마음’은 산구약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였다(사 29:13).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정죄한 죄는 ‘거들 난(벧전 1:23, 25)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외식적 경건’이었다. 저 유명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화(七禍, 마 23장)’는 그것에 대한 정죄였다.

칼빈에게 있어 ‘믿음’ 역시 복음적 역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머리보다는 마음에, 이해보다는 애정에 가까운 어떤 것이었다. 그가 ‘믿음의 위치를 ‘마음’에 둔 것은 참된 지식의 ‘내면성’을 시사한 것이었다. 다음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이 논증을 더욱 확고히 한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외면적인 덕을 갖춘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말의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의 가르침이다. ...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전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발견하고 거하게 되어야만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해야 한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 1620-1686)이 정의해 준 ‘경건의 본질’ 역시 동일하다. “경건은 내적인 것이다. 경건은 주로 마음 속에 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롬 2:29)’.

이슬은 잎사귀에 달려 있고 수액은 뿌리에 숨겨져 있다. 도덕론자의 종교는 온통 잎사귀에만 있는 것으로서 외면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경건은 영혼에 뿌리 내린 거룩한 수액이다. 고대 갈대아어로 ‘내 속’이라는 것은(시 51:6) ‘마음속 비밀한 곳’으로 해석된다.”

◆신비의 여지를 남김

칼빈(John Calvin)은 마음을 ‘자정의의 유기체’

로 보면서도 자정의의 초월하는 그 무엇으로 말할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마음을 인위적으로 분석,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다음의 글에 그런 그의 생각이 잘 반영돼 있다.

“지식의 기준 체계와의 불연속성, 부정합, 모순돼 보이는 것 까리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짜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 모든 것이 일정한 체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이런 그의 태도는 믿음 한가운데 위치한 신비(루터 역시 믿음을 신비로 보았다),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자각, 신학의 인위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 경험의 모순된 실재들에 대한 그의 개방성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런 그의 신학 태도는 신비에 대한 담론을 열어 주었다.

하워드 라이스(Howard L. Rice) 역시 칼빈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스스로를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 칼빈의 많은 추종자들은 한 가지 잘못을 범했다.

이들은 ‘정확한 교리에 대한 동의로서의 믿음’과 신뢰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믿음’ 이 둘을 분리시켜 버렸다.”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합리성’에만 매달리는 여러 식음을 질타한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믿음은 의미 없는 헛소리라 되고 만다. 그러나 합리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믿음은 마음으로 파악될 수 있는 어떤 것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믿음은 지적 동의를 구하는 언어적 공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외에 ‘믿음의 신비에 대해 담론을 열어주는’ 또한 한 가지 요소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 마음의 불가해성(不可解性)’이다.

심리학과 두뇌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인격의 관계’, ‘영혼과 인격의 관계’, ‘육체와 마음의 관계’ 등 마음의 실체에 대한 미진한 규명들이 사람들을 겸손하게 했고, 그러한 겸손은 모든 것을 파악하겠다는 인간의 오만과 불필요한 호기심을 접고, 신비를 겸허히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칼럼 내용은 2005년에 출판된 이경섭 목사의 저서 <개혁주의 영성체험>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재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02-6082-8165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연의 품에서 실 수 있는 곳 - 용인라센트라

드라마 스카이크래스 촬영지, 기흥IC 10분거리

시행사 보유분 특별 판매 마감임박!

※라센트라는 예약방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11-6049

뇌는 혈액순환의 지배를 받는다



이태훈 대표원장
머리앤코글로브한의원

뇌와 심장은 왜 고장 나는가(2)

파킨슨병·소뇌위축
원인 치료 없는 증상 위주의 처방과 치료가 문제이다. 근치(根治)하지 못하니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간다. 증상에 대한 처방과 치료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나빠지는 증상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파킨슨병은 발병에서 사망까지 약 10년이 걸리는데, 3년에 50%씩 가능성이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발병 후 6년이 되면 75%의 기능이 저하돼 누워 지내게 돼, 결국은 혈행(血行) 장애로 사망하게 된다는 말이다.

몸은 공동운명체다. 따라서 병의 운명도 몸 상태와 함께한다. 소뇌 위축과 파킨슨병, 뇌경색, 협심증 등을 동시에 앓는 환자가 내원한 적이 있다. 그는 가장

최근에 들었던 7개 과의 진료기록지와 진단 내역을 보여주었다. 이비인후과,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심혈관내과, 소화기내과의 것이었다. 이 환자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몸 안의 장기와 조직은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협업하면 시너지, 반목하면 도미노가 일어난다. 건강할 때는 시너지라는 협동 시스템이 가동되어 엄청난 가치를 만드는 데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한다. 그 가치는 병이 심해져 줄줄이 무너지는 도미노가 일어날 때 확실히 깨닫게 된다.

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혈액이다. 뇌는 먹성이 좋기에 혈액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 '어지럽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며 암살을 떨게 되는 것은 바로 뇌 때문이다.

뇌로 가는 혈액의 80% 정도를 경동맥(頸動脈, 목을 지나는 동맥), 20%를 좌우 척추동맥이 담당하고 있다. 대뇌는 경동맥, 소뇌와 뇌간은 척추동맥으로부터 주로 혈액을 공급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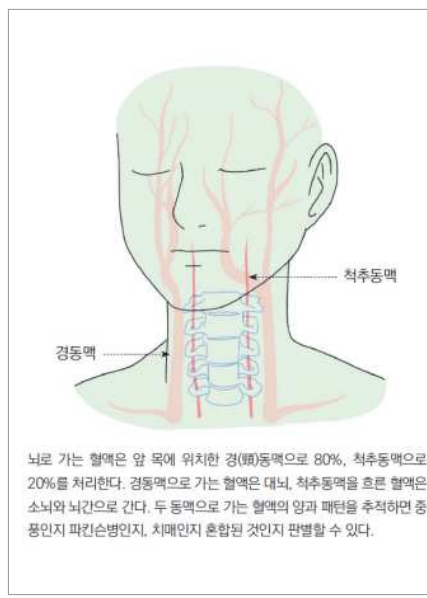
두 동맥이 동일한 양과 압력으로 혈액

을 보내줄 수는 없다. 두 동맥이 전달하는 혈액량과 패턴을 상세히 추적해보면 중풍인지 파킨슨병인지, 소뇌위축인지 치매인지, 아니면 혼합된 경우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다. 진행 정도의 예측도 가능하다. 진단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치료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필자가 파킨슨병 환자들은 척추동맥의 혈액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낸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면 기능이 저하돼 조직이 위축된다. 그 결과 도파민의 분비량이 줄어든다. 이는 파킨슨병도 혈액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는 것은 병목구간이 있다는 것이니, 그곳을 뚫어야 한다. 병목구간을 없애는 치료법이 통뇌법이다. 경동맥과 척추동맥은 물론이고 뇌척수관과 뇌척수신경계,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병목구간을 근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열어서 준다. 이 치료법은 '인상=치료'라는 공식에 100% 부합하는 불도저 같은 치료 파위가 매력적이다.

건강회복은 남녀의 구분도 만든다



뇌로 가는 혈액은 앞 목에 위치한 경동맥으로 80%, 척추동맥으로 20%를 차지한다. 경동맥으로 가는 혈액은 대뇌, 척추동맥을 흐른 혈액은 소뇌와 뇌간으로 간다. 두 동맥으로 가는 혈액의 양과 패턴을 추적하면 중풍인지 파킨슨병인지, 치매인지 혼합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다.

전성기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했다. 그는 '익-익' 소리는 입으로 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만큼이나 현란한 펀트윅, 핵주먹들을 침투시키는 예리한 펀치로 그는 복싱계의 이소룡 같았다.

멋진 사내 알리의 손이 떨리고 있다. 발걸음도 부자연스럽다. 굳어진 그의 일

굴엔 나사가 빠진 듯한 멍함이 보인다.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그마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눌한 말투, 떨리는 손, 짧은 걸음으로 들어오는 환자가 있으면 바로 의심하는 것이 파킨슨병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중풍과 더불어 자주 접하게 된다.

79세의 남자 환자분이 오셨다.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대표의 소개로 왔었다. 등이 굽어 있고 무계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데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넘어져 다칠까 염려스러웠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심혈관에 문제가 있고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있다고 했다. 최근 중풍이 발생해 쓰러졌고, 책상에 앉았을 때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는 현상이 자주 있다고 했다.

통뇌법으로 뇌에 강력한 펌프로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뇌척수관의 병목현상을 제거하는 치료에 전념했다. 하루가 다르게 언어와 보행이 좋아졌다. 손 떨림도 개선되었다. 원장실에 들른 그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원장님, 아침마다 가지개가 시원하게 퍼지고, 주책없는 말 같은데 발기가 돼요. 치료반응이겠지요?"

그와 필자는 동시에 눈을 마주치며 웃고 말했다.

"환자에는 남녀가 없지만 건강해지면 남녀가 구분되지요. 남자로 돌아왔다는 상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하하!"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뇌간 중간뇌의 흑질(黑質)에 존재하는 아세틸콜린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들이 소멸되어 발생한다. 변성 또는 동맥경화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그러나 바로 발현하지는 않고 신경세포의 50~70% 정도가 소멸돼야 증상이 나타난다. 몸이 뻣뻣해지고 균형감이 없어지는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이다. 치매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치매와 파킨슨 등 다른 병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다.

- 대뇌 - 알츠하이머성 및 혈관성 치매
- 간뇌·뇌간 - 파킨슨병
- 소뇌 - 소뇌위축

「통뇌법 혁명: 중풍 비염 꼭 걸려야 하나요?」 중에서

수능 D-30, 7시 이전 기상하고 스마트폰 멀리해야

12월 3일 수능, 규칙적인 '30일 수면 관리' 필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많아지면서 수면 패턴 등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수능이 한 달 남아있는 지금부터 규칙적으로 자고 아침 7시 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지난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능이 머지않았다고 해서 잠을 줄이고 갑자기 공부량을 늘리거나, 반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겠다고 잠자는 시간을 갑자기 늘리는 건 금물이다. 일찍 자고 일찍 깨서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겠다는 생

각도 버리는 게 좋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갑자기 수면 패턴이 바뀌면 오히려 잠을 더 자고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와 비슷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는 "잠은 최소 6시간 자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험생도 지금부터는 기상 시간을 아침 7시 이전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면하기 위해서는 저녁을 소화해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고 야식도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야식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위장장애 등의 소화기질환을 악화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기가 심하다면 약간의 과일이나 따뜻한 우유 등을 가볍게 섭취하는 정도가 좋다.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하거나 영어듣기 평가를 틀어놓고 잠든다거나 하는 행위는 숙면을 방해하므로 삼가한다.

수험생은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임시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지만 잦은 검색은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 불안만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30일 만이라도 되도록 스마트폰은 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는 버릇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수는 전가지만이라도 참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시험이 한 달 남은 만큼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복식호흡 등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다운 기자

AI와 대화로 치매 여부 판별... SKT-서울대, 음성 치매진단법 개발

인공지능(AI)과의 10여 분 간 대화만 해도 치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AI를 활용한 음성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 상용 환경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AI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치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상대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음성 성도를 거치면서 증폭되거나 감소되는데, 치매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음성의 특징을 AI가 분석해 치매 여부를 선별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나 병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치매를 선별할 수 있어 진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앱 형태로 개발되어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부담 없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치매는 일상생활의 저하가 나타나기 전 수년에 걸쳐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활용한 테스트 진행 중인 모습 ©SK텔레콤

및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이달부터 종합병원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치매 선별 정확도를 높여준다.

또 문법 조성이나 언어 반복 등 치매 환자의 언어적 특징과 얼굴 인식, 심박수 및 혈압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한 진화한 AI 치매 선별 프로그램도 2021년 선보인다.

김윤 SKT CTO는 "AI 기술을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의학 프로그램을 상용 환경에서 검증하게 된 것은 AI 헬스케어 분야의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AI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영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은 말씀이나 목소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나 음성을 정량화해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쉽지 않았다"며 "음성 기반 치매 진단법은 치매 조기 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다운 기자

고객센터 070-7722-8403
창성세일

창성제일

잉크 토너 프린터 소모품 전문점

(오후 4시 주문 마감 / 당일 출고)

전국 관공서, 기업체 납품 전문

프린터, 잉크, 토너, 라벨프린터/테이프

대표 공 영 배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273번 안길 4-12

부동산

안양 교회임대

-매물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매물크기: 2층: 45평 지층, 3층: 20평

-거래가격: 총 마다 가격이 다름(연락요망)
*즉시목회가능 주거가능

연락처 ☎ 010-3412-3976

초역세권 교회매매

-매물위치: 경기도 시흥시 송지로(능곡동)58
-거래금액: 9억1천만원(재정부와 상의후 3천~5천사이 조절가능)

-매물크기: 분양평수 170.38평(실평수 98평)

연락처 ☎ 010-2765-1601

전원주택 / 작은교회

-매물크기: 대지:전용면적 186평
건축물: 전체 74평

-거래금액: 9억원 (900,000,000)

-매물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교개에서 약 4km)

▶문의 ☎010-2282-1119(건물주)

부천 교회임대

-거래금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

-매물위치: 경기도 부천 중동(부흥로200)

-매물크기: 221.66m2(약65평)

연락처 ☎ 010-8870-4049

개척교회로서는 최상의 조건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55평
◎거래금액: 2000/85 시설비-2천(조정가능)
◎매물위치: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36번길3
◎아파트 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
◎시설비는 5천정도. (시설비 2천-조정가능)
▶연락처 ☎010-5303-9191

위치좋은 교회매매

◎매물크기: 지분-249.4㎡(75.44평)
/상가-122.94㎡(37.18평) (유아실, 목양실)
◎교회 앞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문화예술 회관과 체육시설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있음.
◎매물위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한승APT 상가

▶연락처 ☎010-9626-9175

유동인구 많은 교회임대

매물위치: 서울시 광진구 노루산 시장 앞

1. 노루산시장 앞 유동인구 많음
2. 인테리어 잘 되어 있음 / 카페같은 분위기
3. 방음이 잘 되어 있음.

6. 예매실, 화장실1개, 부엌, 사무실겸 목양실, 유아실, 창고3평, 목사개인기도실

▶연락처 ☎010-8884-0291

영흥도 교회매매

-매물위치: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674

-매물가격: 27억 (분할매매가능)

-매물크기: 대지 (920/278.3평)

연락처 ☎ 010-4759-5946

신축교회 긴급매매(제주)

-매물위치: 제주 서귀포시(영어교육도시 내)
-교회운영 즉시 가능
-영어교육도시: 120만평
-국제학교(3개) 운영중 (미국, 영국, 캐나다)
-공동주택(단지내) 3,000세대
-거주인원 10,000여명

▶연락처 ☎010-5779-2368

사당동 교회임대

- 위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매매가: 보증금 4,000만원/월세 140만
-매물크기: 165.00㎡(약50평)

*대부분의 성구와 시설을 그대로 놓고 갑니다.

연락처 ☎ 010-6253-0273

최고입지 교회매매

대지(303평, 2필지) - 종교용지 271평 + 밭 32평
건물: 교회-1층(62평) - 소매배실, 식당, 공부방, 관리실, 화장실, 2층(62평) - 본당, 사무실

사택(29평) -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거래금액: 7억원
◎매물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연락처 ☎010-3727-6607

고급주택 매매

◎매물크기: 대 2805㎡ + 최고급 유흥식 단독주택 2동

◎거래금액: 15억 ◎매물위치: 경기도 파주시 [매물장점]

-천혜의 자연경관, 조경완벽, 인프라최상 속속, -기도원, 연수원, K팝속속 및 연습실 최적

▶연락처 ☎010-4830-7383

카페 교회임대

◎매물크기: 20평 ◎거래금액: 500/25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APT상가內 [매물장점]

-4층 건물에 2층, 바로 앞 2300세대 아파트 있음
-목양실 있음 전기판별 있어 생활 가능
-처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좋은 기회

▶연락처 ☎010-4979-7478

오산 최고입지 교회매매

매물위치: 경기 오산 단지내상가
해당층수: 3층의 3층 304호
난방방식: 도시가스
상가용주차장/아파트 건물주차장이용.
잔금치르고 입주/협의바람.

☎ 010-4009-1597

신문 광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신복순(671105-2*****) 2020.8.7. 사망
최후주소: 대전 유성구 덕명서로2번길 21-6, 403호 (덕명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단10438 상속한정승인 (대전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9.21.
◎ 청구인: 송윤기
◎ 공고기간: 2020.11.3. ~ 2021.1.3.
◎ 신고처: 대전 유성구 덕명서로2번길 21-6, 403호 (덕명동)

2020. 11. 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철우(671027-1*****) 2014.3.16.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동구 금호로13길 19 (금호동2가)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단4268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0.16
◎ 청구인: 박수현
◎ 공고기간: 2020.11.3. ~ 2021.1.3.
◎ 신고처: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51 (정발산동)

2020. 11. 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명수(541009-1*****) 2020.6.26. 사망
최후주소: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9번길 108 (송정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단2305 상속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0.16.
◎ 청구인: 1.안정자 2.김경미 3.김나연
◎ 공고기간: 2020.11.3. ~ 2021.1.3.
◎ 신고처: 부산 가장동 일광면 해빛4로 1, 104동 2201호 (이지더원1차오션포레)

2020. 11. 3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19-단8518 상속한정승인 (서울가정법원) 2020조기7171 심판결정 (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2.4.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0.7.
◎ 청구인: 1.김현규 2.김지연
◎ 공고기간: 2020.11.3. ~ 2021.1.3.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터워)

2020. 11. 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성철(650901-1*****) 2020.3.27. 사망
최후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로42나길 6-5, 501호 (화곡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단3486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0.16.
◎ 청구인: 최은화
◎ 공고기간: 2020.11.3. ~ 2021.1.3.
◎ 신고처: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71, 1004동 110호

2020. 11. 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권창현(590815-1*****) 2020.5.27. 사망
최후주소: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4로 74, 109동 401호 (화전동, 우방아이유셀)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단1911 상속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9.10.
◎ 청구인: 권성현
◎ 공고기간: 2020.11.3. ~ 2021.1.3.
◎ 신고처: 서울 중구 다산로42가길 27, 403호 (신당동)

2020. 11. 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정동운(370520-1*****) 2020.8.10. 사망
최후주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나길 3, 101호 (신길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단53997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0.30.
◎ 청구인: 정성욱
◎ 공고기간: 2020.11.3. ~ 2021.1.3.
◎ 신고처: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8 (상도동)

2020. 11. 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한자전(720805-1*****) 2020.6.17. 사망
최후주소: 부산시 논산대로 269-19, 104동 1504호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단141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9.17.
◎ 청구인: 1.이명숙 2.한윤서 3.한윤지
◎ 공고기간: 2020.11.3. ~ 2021.1.3.
◎ 신고처: 부산시 논산대로 269-19, 104동 1504호

2020. 11. 3

분실 공고

분실내 용: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부동산 표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21, 더 오메라 2차 1동 1525호

공고인: 이명옥(010-8812-1169)

2020. 11. 3

교회대출안내

능력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자) 사망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3%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오섭 장로

문의전화 : 010-8652-5600, 010-9681-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2014년 신축 올리모델링



인수가 4천만원대 / 월354만
대지112평 / 건242평
공단 초입구, 먹자골목, 다양한 인프라
위치좋은 알짜배기물건!!
소액투자로 큰 수익!! 대박물건!!
임대걱정없고, 안정된 노후 보장!!
(신용 4등급이상 무주택자 우대)
100% 책임관리

☎ 010-4508-2211

서초구방배동 신축 종교시설(방송시설)

■ 매물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1-4 방배까페거리 대로변위치(이수교차로 근교)
■ 면적: 실사용 면적 676.63㎡(204.68평)
■ 매매가격: 19억원(VAT별도)
■ 기본시설: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난방(도시가스), 시스템(천정형)냉난방기 10대, 공기정화기, LED조명, 부출입구,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목사님 전용화장실 등

■ 특징:
① 4호선 동작역, 9호선 구반포역 인근
② 서래마을 및 서리풀 고급주택 밀집, 유동인구 많음
③ 2020년 7월 주상복합 신축, 종교시설 용도

문의: 010-7175-7757

교회맞춤대출

금리 연3%~

*희소식
10억 이상 금리 2.9%

APT(2순위), 어린이집, 요양원, 기타부동산 건축자금, 미준공자금

전문상담사 박주영 목사

010-8995-3909

신협모집법인 엠비파트너스소속
금융연합회코드 00003658

디지털 바벨론 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화상 기기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젊은이들은 호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화면을 상담사, 연예인, 교사는 물론, 성교육 강사로까지 활용한다. 24시간 연결되어있는 모바일 기기들과 검색 알고리즘은 우리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손바닥 크기의 스마트폰은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비롯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다라는 시인 소로의 매력적인 말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지 않겠는가?...우리는 기술 문명이 우리의 신학을 앞지르도록 허용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 리서치 기관 '바나 그룹'의 대표 데이비드 키네먼과 기독교 컨설팅 기관 '위즈덤웍스'의 대표 마크 매투스의 신간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도전과 함께 비대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정신적 영역 도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한다.

고대의 바벨론은 BC 8세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던 예루살렘의 멸망 후 BC 6세기에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된 곳이었다. 그곳은 이교 문화의 중심지이자 자국적이며, 다문화적이고, 부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인간 욕망이 가득 찬 살제의 장소였다. 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찬 실제 장소였다.

저자는 우리들은 고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배자(Exiles)처럼 오늘날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와 살아가고 있는 유배자들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바벨론은 실제 장소는 아니지만 특성은 똑같다. 와이파와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상의 장소로서 자국적이며, 다문화적이고, 부와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 곳이다."

고대 바벨론은 이교 문화의 중심지이자 자국적이며, 다문화적이고 모든 부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살제의 장소였다. 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곳 디지털 바벨론에 머물 계획을 세우고 역동적이고 충실한 믿음으로 문화적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역동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 고대 바벨론에서 유배자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한다.

고대 바벨론 믿음의 유배자들에게서 배우는 승리의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 바벨론에서 유배자로 살았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기정체성 잃지 않았다.

둘째, 문화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

셋째, 고립과 불신의 시대 동족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했다. '함께'라는 내면적 유대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았다.

넷째, 바벨론 시대에 유배자로서 잠시가 아닌 오랫동안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인 생산적인 공동체를 준비했다.

다섯째,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잃지 않았다.

여섯째,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다.

이 여섯 가지가 바벨론에서 유배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이해하고, 저자가 10년이 넘게 관찰해 온 제자 양육의 다섯 가지 원리, 곧 제자 양육을 위한 다섯 가지 유형의 의도적인 행위를 면밀하게 다루고,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섯 가지 실천 원리를 잘 활용하면, 디지털 바벨론의 유배자로 살면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 그런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황지현 기자

11월, 작가들의 말말말



"날이 저물 때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산더미 같더라도, 나와 계속해서 교제했다면 그날은 성공 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성공을 평가하는 잣대가 세상에는 매우 많지만 대부분 의미 없는 것들이다. 네가 했갈리지 않도록 단 한 가지 판단 기준을 알려 줄게. 바로 나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야. 나는 네가 나와 교제하기를 최고의 목표로 삼을 때 가장 기쁘다. 하루를 살면서 나와 더 깊이 소통하면 할수록 너는 나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거야. 내 임재의 빛이 너의 길을 밝히고 무엇이 죄이며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분명히 알려 줄 거야. 바로 이 빛이 너의 영혼을 만족시킬 거야. 그러기에 항상 나와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분별하는 확실한 기준이란다."

사라 영, <더어 저저스>



오늘 본문(시 136:1-3)이 말하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은 그저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그의 초월적 우위입니다. 상대적 우위가 아닙니다. 절대적 우위입니다. 자기 집착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마저 상대화 시키려는 시류를 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중심이 하나님 그분임을 새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우리는 아직 한참 더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이 있습니다. 이장렬이총재,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놀랄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당신이 금식한다고 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거나 영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판단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하나님에 받으실 만한 존재로 바꾸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사람이 지 증명하려고 금식할 생각이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수잔 그레고리, <다시금식>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2021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증사업 시작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1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예배서 출간 소식을 알리며 기증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정 사역의 시작은 가정예배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예배는 삶 가운데 지치고 상처 받은 영혼을 회복시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가정예배의 회복을 위해 2021년도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출간됐다"며 "다양한 교단에 속한 105명의 신도들이 현장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서 찾아낸 알찬 내용으로, 365일 매일 입을 성경말씀과 설교(묵상), 주일말씀(묵상)이 실려 있으며, 별책

부록으로 일반 성도들이 생활 속의 예경사와 절기 등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가정예배 식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정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가정생활사역과 문서선교를 위해 가정예배서의 구매와 기증사업에 동참하여 달라. 가정예배서는 가정예배와 교회의 각 부서 예배, 경건회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성탄과 새해 선물, 시상품, 구역장 및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의 선물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며 "더불어 교도소 재소자, 병원 환우, 군부대 교회의 징병들이 예배서를 받아들 수 있도록 후원하실 수 있다"고 했다.

2021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증 사업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귀성난치병 가정 100권 ▲다문화 가정 100권 ▲장애인 교회 300권 ▲북한이탈주민 교회 200권 ▲그룹홈, 쉼터(노숙인, 미혼모, 청소년 등) 300권 ▲미자립교회 400권 ▲교도소, 군부대, 병원 1,000권 ▲여성 단체 및 기관 200권 포함 기증부수 2,600권이 목표다. 가정예배서 정가는 11,700원(개별 기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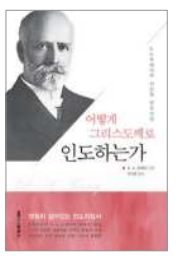
교회에 10권 이상 기증 시 1권당 10,000원(도서정가 10% 할인+마일리지 5% 할인)으로 할인된다.

기증 전달 방법 ▲선정된 기증처에 기증 안내 편지를 넣어 택배로 발송 ▲원하는 기증처에 한해 기증한 곳의 교회, 단체 이름 라벨 작업 후 발송 ▲원하는 기증처에 한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기증처와 기증 부수를 결정해 기증방식을 선택하고(직접 방문 기증 또는 우편 기증 등), 가정협 사무실(02-763-8728)로 연락하여 기증처에 기증 부수를 알려주면 된다. 노형구 기자

10만 명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R. A. 토레이의 전도비결

신간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가』



기 전까지는 기독교에 한다면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습들에 대해였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을 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일대학교 신학부 시절, DL 무디의 집회에서 불꽃전도자의 사명을 깨닫고 이후 15년간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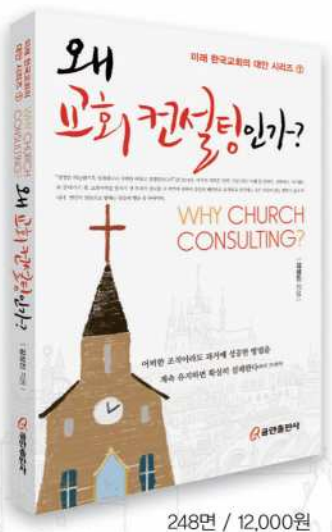
적인 전도운동을 펼쳐 1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예수교로 인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목회했던 교회들이 그와 똑같이 전도하게 만들었다. R.A 토레이의 고전인 이 책은 각 페이지의 내용을 새롭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특별히 디자인했다.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 마음이 열린 자

들, 까다로운 자들, 독선적인 자들, 불확실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 핑계 대는 자들, 반대자들 8 가지 다양한 대상자를 다루는 방법과 사례 효과적 전도훈련을 위한 나눔을 위한 질문들과 전도 현장에서 전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소개한다. 토레이의 전도 열정과 토레이의 실제 전도사례가 독자들에게 용기와 실제적 도움을 줄 것이다. 황지현 기자

목회컨설팅연구소 김성진 목사의 교회세우기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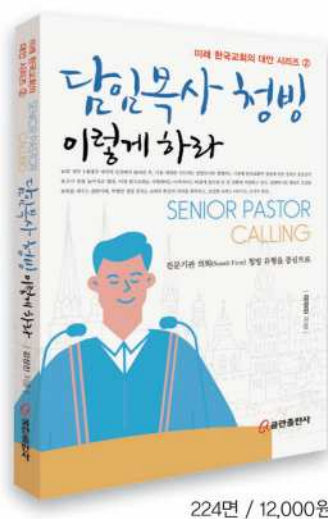
미래 한국교회의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 시리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잠 20:18).

지역사회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지략의 한 방편으로 목회 컨설팅 즉 진단검사를 통해 각 교회에 맞는 다양한 실천, 적용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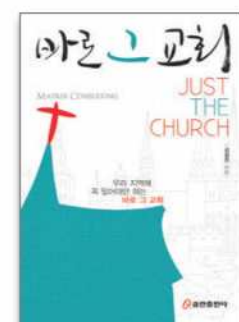
248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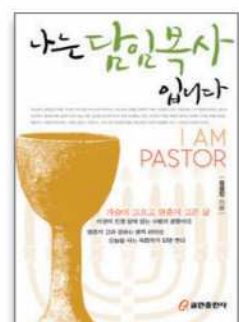
담임목사의 청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며, 투명한 청빙 절차는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된다.

전문기관 의뢰(Search Firm) 청빙 유형을 중심으로 교회 청빙 문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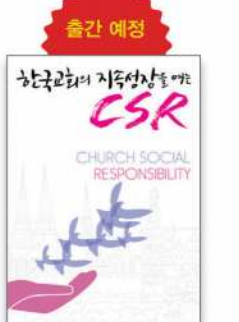
224면 / 12,000원



바로 그 교회 412면 / 15,000원



나는 담임목사입니다 220면 / 10,000원



한국교회의 지속성장 여는 CSR 240면 / 12,000원

저자 김성진 목사

- 목회컨설팅연구소(MSC) 소장
- 현 한성대학원 지식서비스 컨설팅 전공(Ph.D.) 중
- 국제 공인 컨설턴트 자격

-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1급
- 한국 M&A 거래사 자격 취득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컨설턴트 자격 취득

- 미국 Yellow Yoke Institute 리더십과 컨설팅 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한국카네기 리더십, 관리자 리더십, 최고경영자 리더십과정 수료
- 미국 Golden Gate Theological Seminary 리더십 졸업(Ph.D.)

- 아침을 걷는 묵상집 여름집 152면 / 9,000원
- 아침을 걷는 묵상집 가을집 240면 / 10,000원

매일묵상 다 이루었다

요 19: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19:29 저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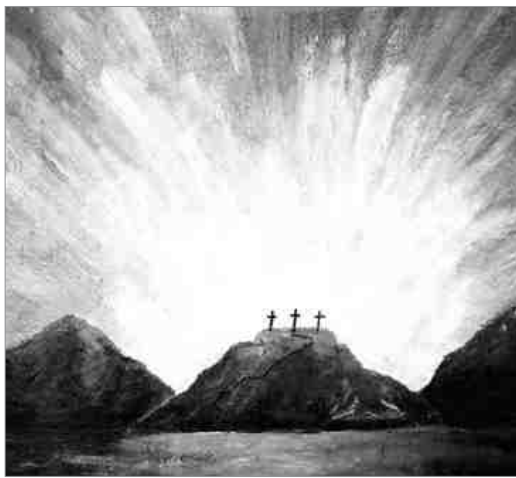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호흡이 점점 사그라들어 숨을 거두시기 직전, 주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수난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님께서 고통과 길을 가실 때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신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감내하며 가셨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신 포도주를 받으심으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사69:21)"라는 시편의 말씀을 이루셨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매어 주님의 입에 대니. 구약에서 우슬초는 유월절(passover)과 정결례에서 썼던 것이다.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서 문에 뿌린 곳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출12:22). 그리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우슬초가 사용되었다(레14:4). 우슬초에 입을 대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죄로 인해 부정해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다. 이 말씀은 짙은 어둠이 임한 자리,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리,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터져 나온 말씀이다(마27:45-46).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어 못박히신 그 자리는 미움을 용서로 이기신 승리의 자리였다. 모든 소망



이 끊어진 자리에서 주님은 절대 믿음으로 부활의 세계를 앞당겨 보시며 어둠 속에서 광명을 드러내셨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또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다. 거룩한 땅에 둘 수도 없는 죄인이라 하여 세워진 십자가 형틀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높이 들리셔서 구원의 길이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주 아래 놓인 우리를 대신해 받으신 자로우며, 우리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흠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요, 이것은 실로 위대한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더 이상 보충할 것 없는 너무나 충분한 사랑이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일평생 머리 돌 곳 없이 사셨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상에서 머리를 두셨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기대어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묵상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3일간 보이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진정으로 알게 되었는가? 날마다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께서 가신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

바이블지식IN

예수님은 무슨 요일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나

질문: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나?

답변: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 형을 일주일의 어떤 요일에 받으셨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금요일과 수요일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금요일과 수요일의 주장을 종합하여 그 날이 목요일이라고 논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금요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무덤에 3일동안 계셨다고 여길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여전히 있다고 말합니다. 1세기 때의 유대인의 생각에는, 하루의 일부라도 온전한 하루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금요일의 일부, 토요일 모두, 그리고 일요일의 일부 동안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삼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을 주장하는 주요 논증들 중 하나는 마가복음 15장 42절인데, 그 구절은 예수께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알려줍니다. 만일 그 안식일이 매주 지키는 안식일, 곧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됩니다. 금요일을 지지하는 또 다른 주장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누가복음 9장 22절과 같은 구절들이 예수께서 삼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음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무덤에서 온전한 세 번의 낮과 밤을 계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번역들이 이 구절들에 대해 "삼일째(on the third day)"를 사용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삼일째(on the third day)"가 이 구절에 대한 최고의 번역이라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마가복음 8장 31절은 예수께서 삼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목요일의 주장은 금요일 견해를 확장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일요일 아침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어떤 사람들은 20가지나 되는 사건들이라고 말한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에 발생하기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견해 지지자들은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서 오로지 온전한 하루 전체로 볼 수 있는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뿐이라는 것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루나 이를 정도의 시간이 더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요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월요일 저녁부터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그를 본 때가 목요일 아침이라면, 엄밀히 따지면 오로지

60시간(2.5일)일지라도, 당신은 "나는 너를 3일 동안 보지 못했어"라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목요일에 십자가 형에 처해지셨다면, 이는 어떻게 그 날부터 3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요일이라는 견해는 그 후에 2차례의 안식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안식일은 주께서 십자가에 처해진 그 날 저녁부터 시작되며 [막 15:42; 눅 23:52-54], 그 후에 여자들은 향유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들이 안식일 후에 구입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막 16:1). 수요일 견해는 이 "안식일"을 유월절로 봅니다(레 16:29-31, 23:24-32, 39를 보면, 한 주의 꼭 일곱째 날은 아니더라도 절기의 성회는 안식일로 지칭됩니다). 그 주의 두 번째 안식일은 일상적인 매주의 안식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첫째 안식일 후에 향유를 샀던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와 향료를 준비 하였고 "안식일에 쉬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이 주장은 그 후에 두 차례의 안식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안식일 후에 향유를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안식일 전에 향유를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차례의 안식일 견해를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목요일에 십자가 형에 처해지셨다면, 절기의 성회 안식일(유월절)은 목요일 해가 질 때에 시작되어 금요일 해가 질 때에 끝났을 것이며,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는 일상적인 안식일의 시작 또는 토요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안식일(유월절) 후에 향유를 구입했다는 것은 토요일에 구입했다는 것이 되고 이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요일의 견해를 따르면, 여인들과 향료에 대한 성경의 서술이 모순되지 않고,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그리스도께서 수요일에 십자가 형에 처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절기 성회의 안식일(유월절)은 목요일이었고, 그 후 여자는 금요일에 향유를 구입했고, 같은 날 집에 돌아와 향유를 준비했으며, 그리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쉬었으며, 일요일 이른 아침에 향유를 무덤에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달력으로 목요일의 시작, 곧 수요일 해질 무렵에 장사되었습니다. 유대 달력을 사용하면, 목요일 밤(첫째 밤), 목요일 낮(첫째 낮), 금요일 밤(둘째 밤), 금요일 낮(둘째 낮), 토요일 밤(셋째 밤), 토요일 낮(셋째 낮)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정확히 어느 시간에 부활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요일 해 뜨기 이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는 빠르게 유대인에게 한 주의 시작인 토요일 저녁, 해가 지지마자 부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빈 무덤의 발견은 아직 어두운 때에 (요 20:1), 즉 동이 틀 때에 이루어졌습니다(막 16:2).

수요일 견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를 향해 걷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에 걸었다는 사실입니다(눅 24:13). 예수님을 알아 차리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께 말하고(24:21) "오늘은 이 일이 일어난지 3일 되었다"고 말합니다(24:22).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4일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명은 그들이 유대인의 목요일이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수요일 저녁부터 세웠을 수도 있으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3일로 계산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볼 때, 예수께서 무슨 요일에 십자가형을 당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매우 중요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날과 시간 대를 분명하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점입니다. 똑 같이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죄인들이 받아 마땅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3장 36절은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수요일,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받으셨던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한결같은 진리입니다.

[출처] 갱네스천스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1 Peter 5:6 NIV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 humble yourself: 겸손하게 처신하다
- mighty: 강력한, 장대한, 웅장한
- hand: 힘, 영향력, 역할

- may: '목적(purpose)'을 말하기 위한 조동사
- lift (up): 들어 올리다
- in due time: 때가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연 천재교육자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입국론!

“교육을 통한 인재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교육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입국론

김현태 지음

"나도 1947년 10월 10일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교육이 나라의 생명이다'고 말하며, '교육을 통한 인재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 책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입국론을 소개합니다."

한경사회복지회 도서출판 생

이미 서당에서 동양의 학문과 배재학당에서 서양의 학문을 두루 섭렵한 이승만 박사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미국의 조지워싱턴대학, 하버드대학, 프린스턴대학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 교육자였다. 해방 공간에서 80%의 문맹자를 단시일에 20%로 줄인 교육입국론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드신 분이, 바로 교육입국론을 펼치신 이승만 국무부장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김현태 지음 / 도서출판 생 / 신국판 총 468쪽 / 정가 20,000원

저자소개

김현태

인하공과대학 기계과 졸업
충주비료공장 직장10년
(주)한일루브텍 회장
강남일교회 원로장로
명예공학박사
환경사회복지회 회장
국민교육유공 무궁화장 수상

이승만박사가 설립한 인하공대 졸업생 김현태 선생의 저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진실

5천년 왕조정치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국민국가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진정한 혁명가 이승만 초대대통령! 그분은 6.25대 호국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북의 끊임없는 도발에 울타리를 쳐주어 경제에 전념케 했다. 우리가 5천년 번방 최빈국에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경제 10위권의 세계중심국가로 우뚝서게 된 것은 그분의 덕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그를 국부로 모셔야 한다.

(신국판 총 160쪽 / 정가 8,000원)



논설문과 연설문을 통해 본 이승만 박사의 반공정신과 대한민국 건국

해방 공간에서 대한민국이 택한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가, 북이 택한 공산주의 통제경제체제를 체인했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살게 되었는지를 잊은 배은망덕하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신국판 총 306쪽 / 정가 15,000원)

이 책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주소, 성명, 구입할 책명을 알려주시면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입금 확인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김현태 010-8780-7865]

예수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세계 통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당시 로마가 제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한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였다. 그의 메시지는 해롯이나 유대총독이나 로마황제에게는 불손하게 들리는 내용, 즉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는 정치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당시 로마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제국이였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왕국을 의미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나사렛 예수의 메시지는 로마의 통치와 평화를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선동으로 오해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나중에 빌라도에 의하여 반체제 선동가의 누명을 쓰이고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세상 권력에 대항하는 반체제적 설교라기 보다는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통치의 메시지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지어는 로마제국도 통치하신다는 메시지가였다. 예수는 세상을 궁극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인간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설교한다. 예수는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인 그의 사역, 신체적으로 병든 자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확장되는 실재로 나타났다.

질병을 고치심

예수의 복음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체적인 질병의 치유였다.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막 1:32-33). 베드로 장모의 열병, 문둥병, 귀먹음, 눈멀, 중풍병, 혈루병 등 각종 난치병까지도 치유하셨다. 하나님의 통치는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예수의 치유사역을 통하여 인간에게 신체를 주신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고통의 하나인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다. 한국의 초창기 그리고 오늘날 복음전파에 있어서도 항상 치유사역은 뒤따르고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통치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다.

영혼을 고치심

예수는 육체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셨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사함을 받도록 하셨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달아 내린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막 2:5)고 말씀하신다. 이에 대하여 힐난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막 2:10)고 말씀하신다.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막 2:11)고 명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간다"(막 2:12).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정신적인 것, 죄가 육체적인 것,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의 원인이 된 죄의 사함을 선언하시므로 그의 죄를 용서해주셨다. 그래서 그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신 것이다.

그리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 와서 판결을 묻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하신다. 고발자들이 하나님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사라져 버리자 예수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고 말씀하신다. 예수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권면하신다. 예수의 새로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고쳐원칙적인 사랑과 인자의 법으로 완성시키는 데 있다. 예수는 간음한 여인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용서와 새로운 기회로 사용하시고 계신다. 그의 사랑의 법 안에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사랑의 계기로 전환된다.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명강)

하나님 통치는 영적 실재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재이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소아시아 각 지역(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등에서 이론 인격적이고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지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실재였다.

예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훼방"(마 15:19)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탐심에서 벗어나는 때 마음이 가난해진다. 천국은 오로지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의 실재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도덕적인 실재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화락이다"(롬 14:17).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평강이다. 우리 마음 속에서 강과 같은 평강이 넘치고 마음 속에서 철사가 없이 하늘의 곡조가 흘러나오고, 외부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평강이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이다. 이 평강은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 누렸고, 신약의 사도들이 감옥에서

누렸고, 교부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성도들이 누렸고, 청교도 시대 성도들이 박해시절 누렸고, 오늘날 중생한 성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평강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물질적인 처소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눅 17:20이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안에서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비(非)가시적인 것이며, 영적이며 정신적 도덕적 실재이다. 오늘도 죄인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헬벳은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인자가 선포되고 실현되는 처소에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인 실재로 존재하고 있다.

확장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것은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의 작은 실재이다. 그러나 하나님 통치는 이 세상에서 도피한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 통치는 이 세상 안에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중생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 도덕적 실재이다. 종교인이요 바리새인이니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나아가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했을 때 예수는 그에게 중생의 도리를 가르쳤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중생한 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만 들어오셔서 내주시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중생의 도리를 듣고 그 날 중생의 경험을 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나중에 확장된다. 예수가 후일에 십자가에 처형되어 누구도 예수의 사체를 찾아가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의 시신을 들로 된 무덤에 안치한다. 이 용감한 행동 속에서 니고데모의 신앙은 확장된다. 그날 밤 중생의 도리를 깨닫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러한 용감한 행동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통치의 실재는 사도 바울, 에디오피아의 내시, 고넬료, 아가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김선주, 주길, 손양원 등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구체적인 역사적인 실재로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만드는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와 세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확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만 머무는 고정된 공간이나 처소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중생한 자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지니는 역동적인 실재이다. 김영한 박사

오늘의 예화

용기 있는 구혼자

와세다 대학의 '아베 이소오'교수는 도쿄에 있는 한국 학생들의 초청을 받아 강연회를 하던 중,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을 자신의 경험으로 표현했다. 자기가 전차로 통학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차에 오리기만 하면 책을 펴두고 결혼할 한 번 하는 일이 없이 책에만 정신을 쏟고하는 암전하게 생긴 여학생을 보고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용모와 태도를 보아 양반집 딸임에는 틀림이 없고 장차 훌륭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에 충분한 여인이라고 생각한 아베는, 어느 날 여학생이 내리는 정류장에서 따라 내렸다. 그리고 여자 몰래 뒤를 따라가 그의 집과 주소를 확인하고는 문패의 이름으로 편지를 했다. 내용은 "자기를 사위로 삼아 달라"는 구혼의 편지였다. 당돌한 남학생의 편지를 받은 여학생의 부친은 좌우간 한 번 찾아오라고 답장을 냈다.

회답을 받은 아베는 즉시 그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학교의 성적은 묻는 말에, 서슴치않고 첫째라고 대답을 했다. 후일, 다시 부르던 오라는 말에 아베는 그 집을 나왔는데, 여학생의 부친이 학교에 전화하여 그의 성적을 알아본 결과 첫째가 아니라 꼴찌였다.

화가 난 여학생의 부친은 그를 다시 오라고 하고는 "성적이 꼴찌면서 첫째라고 거짓말하는 학생놈은 다시는 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호령하는 통에 대답 한 마디 못하고 물러났다. 마음이 상한 아베는 '그러나 사랑스런 저 학생은 반드시 내 아내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하고는 열심히 공부한 결과 3학년 말에는 1등을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찾아가 전일에 거짓말했던 것을 사과하고 첫째가 된 것을 보고했다.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학생이 다시 찾아와서는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여학생의 부친은 학교로 다시 확인하여 보았더니 1등이 분명했다. 기특하게 생각한 부친은 날짜를 잡아 약혼식을 올리고 얼마 후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말하고는 단상 오른편에 앉아 있는 자기의 부인을 가리키며 "그렇게 예쁘고 암전했던 처녀가 지금은 저렇게 늙었답니다"하여 청중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분발케 하였고 성공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일4:18)

은혜 한 장

화제의 책 BEST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해야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성령하나님 중에서...

네이버에서 **N 성령 하나님** 을 검색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순한 천연 바디워시-카키

감 열매 발효 원액 35% 함유!

바디워시 카키 한병에 감 3개를 통째로 담았습니다.

3가지 콜라보 주요 성분

복합 유향
(유향온천 농도의 9000배)

감초

아미노산

안전등급 1-2등급

24시간 촉촉 보습

천연 성분 바디 워시

알러젠프리 명품 향기

와디즈 알림신청 + 슈퍼얼리버드 패밀리 펀딩 하면!

120명에게 스팟 비누를 드립니다

여성초, 유향을 담아 피부 케어에 좋은 스팟비누!

₩ 20,000원

네이버에 "스팟비누"를 검색해보세요!

NAVER 스팟비누 검색

와디즈에서 "바디워시 카키"를 검색해보세요!

step 01 와디즈에 접속해 바디워시 카키 검색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step 02 펀딩 오픈 후 슈퍼얼리버드 패밀리 펀딩에 참여합니다.

이벤트 기간: 본 펀딩 종료시까지

이벤트 대상 및 참여 방법: 오픈 전 알림신청 후 슈퍼얼리버드 패밀리 펀딩 완료한 서포터

주의 사항: 와디즈 플랫폼에서 펀딩 성공시에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와디즈 펀딩하고 바디워시-카키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www.rafarophesoap.com

전화번호 043-900-0367 / 010-7767-0388 / 010-6410-0377 **라파로페 본사 쇼핑몰**

성경고인물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인가? IV

C. 시련을 통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
1.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최초의 시련은 기근 문제였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 땅 우르나 잠시 머물렀던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이며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던 세계의 중심지였다. 그에 비하여 가나안 땅은 동쪽과 남쪽으로 사막을 접하고 있는 문명의 외곽지역이었다. 주변의 사막기후로 인한 영향으로 가나안은 정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불 부족 지역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문명의 중심지에서 물이 부족한 변두리 지역으로 불러내신 목적은 열악한 환경을 통하여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또 다른 문명의 중심지인 이집트로 이주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를 오히려 회피한 셈이다. 그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 인간중심적이고 누구나 쉽게 택할 수 있는 관례였다. 기근이 닥을 때, 물 걱정이 없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당시 흔하게 볼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 그런 선택은 신앙인에게 자주 찾아오는 유혹이기도 하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아브라함의 노력은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당할지도 모를 위협을 미리 걱정하였다. 그것은 외모가 빼어난 사라를 이집트 사람들이 빼앗아 가기 위하여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였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속였다.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동생이었다(창 20:12) 그러나 이제는 그와 결혼한 정식 아내였다. 자신의 번식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볼 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 아니라 그 약속을 함께 성취해야 할 동역자였다. 그런 점에서 아내마저도 포기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 계명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바로는 외국에서 온 매혹적인 외모의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창 12:16)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받은 것은 일종의 결혼보상금인 '모하르'로 이해된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를 얻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일대 위기가 닥쳐왔다. 아브라함에게 부딪친 위기는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으로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재앙'으로 변역된 히브리어 '나가야'는 피부병과 관련된 것으로 문둥병 일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바로는 그런 재앙을 통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잘못을 깨닫고 그녀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준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숙함으로 자초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림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을 크게 늘리는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실현되었다.
2. 영적고향의 소유자 아브라함
 이집트에서 위기를 넘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브라

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 남방(네게브)을 거쳐 곧바로 벰엘로 직행했다. 왜 아브라함은 벰엘로 곧바로 올라왔을까? 성경은 벰엘이 아브라함에게는 영적고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단을 쌓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았던 곳은 벰엘이었다. 그러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던 곳은 벰엘이 처음이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한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일종의 신행민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그 땅을 자신의 새로운 영적고향으로 삼았다. 고향이란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생명이 탄생되고 부모의 보호아래 생명이 성장하는 곳이다. 생명의 탄생과 성장으로 고향은 의미화 된 특별한 땅이 된다. 아브라함은 벰엘을 의미화 된 영적고향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고향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귀소본능의 장소이다. 연어가 태평양 바다를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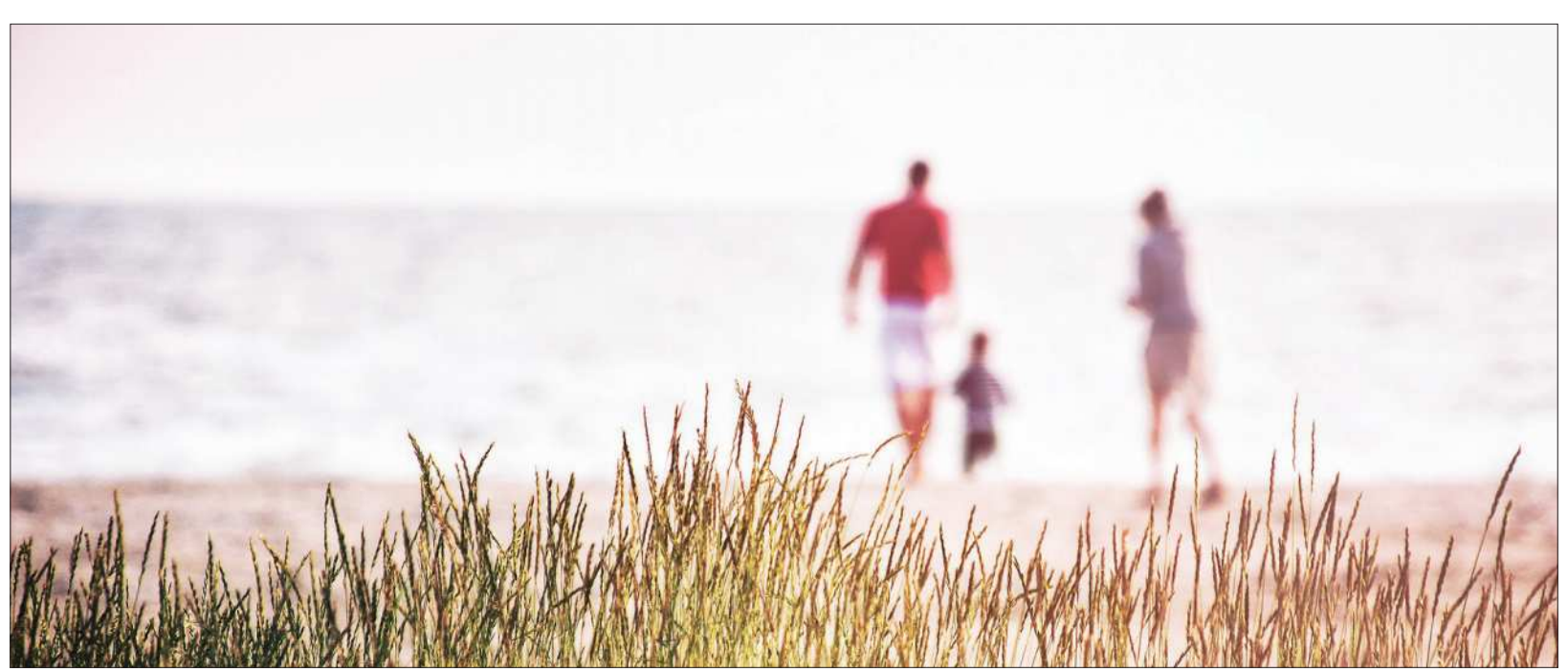
질러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듯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실패를 경험한 뒤 영적고향인 벰엘로 직행하였다.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돌아와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싶었다.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떠도는 장막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 11:10)을 바라본 신앙의 인물이다. 벰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같은 곳이었다.
 가나안을 자신의 영적고향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그 후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가나안 중심의 신앙을 물려주었다. 이집트에서 생을 마친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이 묻혀있는 가나안에 장사지내줄 것을 당부했다(창 47:29-30) 요셉 역시 출애굽 때에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으로 옮겨 줄 것을 부탁했다(창 50:25) 그런 신앙 전통은 계속 이어져 유대민족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보냈던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의 삶과 역사를 지켜준 힘이 되었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안전가는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영적고향이었다. <계속>
 권혁승 박사

만나라이프

천국 같은 가정

창1장 28절=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천국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아담의 가정이 형제 살해라는 비극적 파국으로 귀결 되었듯,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에서 멀어지게 될 때 천국의 기쁨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가지 시험을 이기신 후,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주 천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기다려온 자들에게 들려주신 첫 음성은 '심령의 가난'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람어의 가난은 '겸손'의 복수였습니다. 즉 심령의 가난은 자극히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가난한 것이 아니라 거지와 같이 처참한 가난의 상태를 이르는 말이 헬라어의 프토코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상태를 천국의 백성된 자의 첫 번째 덕목으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씀을 안다하고, 더 이상 목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도 않

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는 새벽예배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 이셨지만,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막1:35)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눅 22:44)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요5:19)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듯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홀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인간은 불안하고 허무하고 쓸쓸해 집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세계가 황폐해 집니다.
마11장 29절=예수님의 마음은 운우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쉬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과 쉬는 매우 귀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조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제 7일 때에 안식 하셨다고 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룩과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내 안에 답답함과 불안과 일체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데서



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명을 만나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과 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속한 매우 귀한 세계입니다. 8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안에 계시된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세계를 알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는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이런 복음을 실천하는 최고

의 장과 같은 곳입니다. 가정도 서로 섬김을 받고 자 하면 부딪히고 힘이 들게 됩니다. 답답해 집니다.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더 높은 자리에서 그의 부족한 모습을 정죄하는데서 또 높은 자리에서 그가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크게 보이는 원망 속에서 일어납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있게 될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더 섬겨 주어야 하는데, 더 섬기지 못해서 미안한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위한 것 같은 거짓된 속삭임을 합니다. "너 지금 무시 당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걸

해야 해?" 예수님이 보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철저히 '그를 위한' 섬김이며 낮아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가난한 심령 즉,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복된 인생,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복(福)의 어원은 (종교적 행위로서) '무릎꿇다'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에서의 복(福)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幸福)도 그 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전국팔도 전통시장 여행!

다

시

장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위한 새로운 제안

전국 팔도의 전통시장에서 취재한 여행소식지 **‘다시, 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검색창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블로그’를 검색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시청각장애인법 다른 영화제작사, 밀알복지재단과 MOU 체결

밀알복지재단 산하 헬렌켈러센터는 영화배우 친구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제작사 (썬파인스토리)와 사회공헌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감독 이창원, 권성모)는 평생 외톨이로 살아온 재식(진구 분)과 시청각장애 아동 은혜(정서연)가 한집살이를 하게 되면서 겪는 삶의 변화를 다룬 작품이다.

재식은 극 중 유별난 결벽증의 소유자이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은혜와 함께 지내는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을 이어간다. 이후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며 방법을 찾게 되자 두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밀알복지재단 측은 "영화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이하 헬렌켈러법)을 주요한 소재로 다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알리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중복 손실된 장애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일명 '소통의 장애'로 불린다. 사소한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과 직업 등 삶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정비와 법 제도 개선이 절실하지만 실행조사조차 된 적 없어 그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무관심 속 시청각장애인들은 인간의 기본권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 (주)파인스토리 이창원 감독 ©밀알복지재단

이에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와 (주)파인스

토리는 이번 협약을 체결하고 시청각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영화 홍보와 더불어 시청각장애의 특성과 실태를 알리는 한편, 헬렌켈러법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2019년 4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로 입법운동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시청각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회를 찾아가 헬렌켈러법 제정에 동의하는 1만8천여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시청각장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영화가 제작돼 감사하고, 영화를 통한 관심이 헬렌켈러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영화배우 진구, 아역배우 정서연과 더불어 영화 "기생충"에서 총수역으로 극을 이끈 주역인 장혜진, '공공의 적' 등 출연작마다 명품 연기를 선사해 온 강신일이 출연한다. 오는 2021년 5월에 개봉한다. 노형구 기자

엄정화, 네이버 해피빈 정기저금 캠페인 진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이 엄정화와 함께 네이버 해피빈 정기저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MBC '놀면 뭐하니?'에서 환불원정대 만우극회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이자 가수 엄정화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일에 앞장선다. 엄정화는 2012년 영화 '몽타주'를 계기로 재단과 실종유괴예방 캠페인을 펼친 이후 꾸준히 국내외의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이어왔다.

특히 그는 올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자택 공개 장면을 통해 결혼후원으로 인연을 맺은 아프리카 세네갈 아동들과 사진, 편지를 나누고 이를 소중히 간직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번 해피빈 정기저금 캠페인은 해외 여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엄정화는 8년간 지속해온 결혼후원에 대한 진솔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기부 동참을 독려한다. 정기저금으로 모인 전체 기부금은 해외 여아 지원 및 여성역량 강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엄정화는 사회적기업 '동구밭'의 해피빈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수년째 결혼후원을 실천하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엄정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감편당에도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동구밭의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기부 키트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금 전액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한다.

재단은 해당 기부금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빈곤 가정 아동들의 코로나-19 및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식수위생시설, 위생용품, 마스크 등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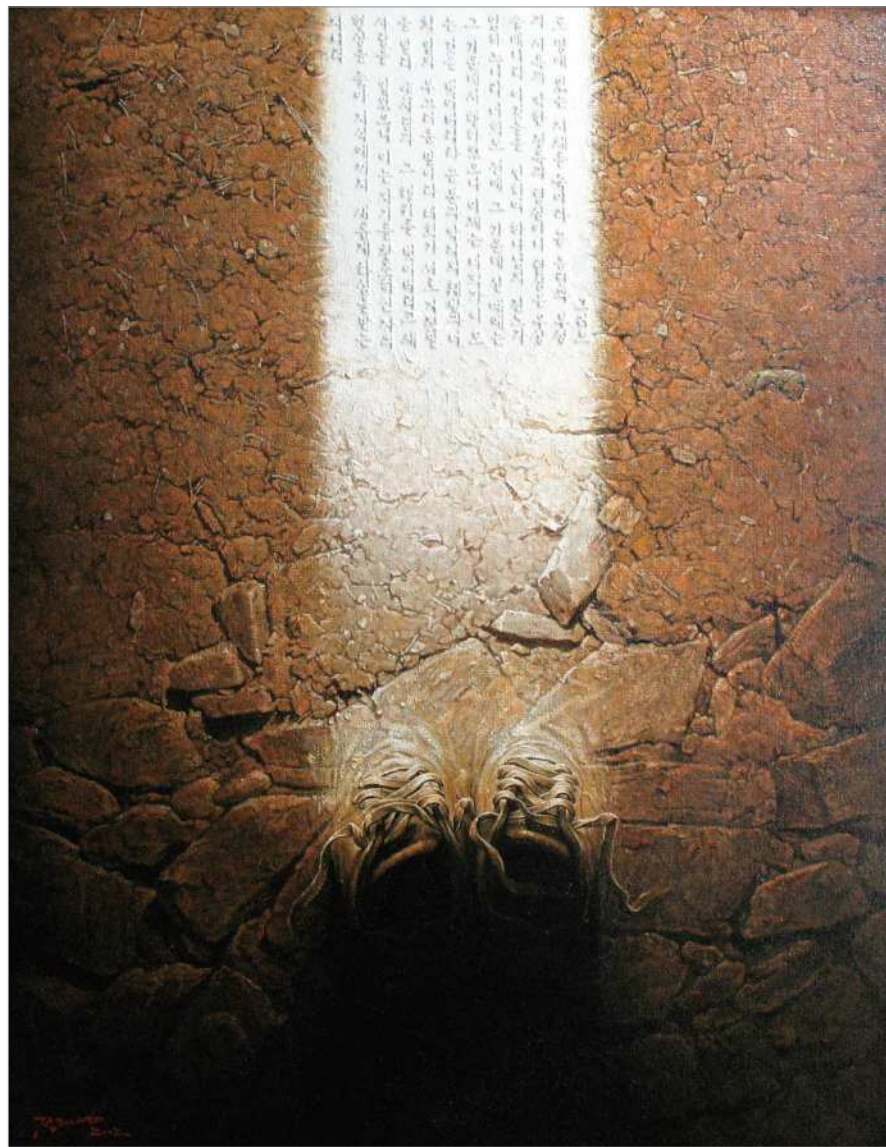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BS TV	CTS 기독교TV	CGN	GoodTV	Cchannel	
오전	5:00	00 TV 설교/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30 TV 설교/100주년기독교회 정현조 목사	00 CTS새벽예배-한홍 목사(새로운교회) 30 생명의 말씀-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00 생명의 삶 2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명실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의 생터 관음교회 김한배 목사	00 클래식 말씀의 창 - 이원원 원로목사 30 복음강단 -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10 TV 설교/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00 생명의 말씀-전원호 목사(광주은광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강명 목사(예수사랑교회)	00 [말씀] 서정오 목사(동승교회) 4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0 비전설교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00 생방송 명실교회 새벽기도회 40 인생을 바꾸는 7분 예수가 길이다 50 노년담화
	7:00	00 TV 설교/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50 TV 설교/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	20 [말씀]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0 은혜와 찬양 20 말씀의 생터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말씀의 생터 온누리버전교회 김동국 목사	00 'Pray with us' C채널 중보기도회 20 C채널 명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8:00	40 TV 설교/꿈의 강단	00 생명의 말씀-이기용 목사(영광제일교회) 30 자판기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20 말씀의 생터 전주시온성교회 황세목사 50 기도하는 노트북	0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30 말씀의 창 - 치유하는교회 김익서 목사
	9:00	20 TV 설교/만나의 말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00 1교회 1학교 세우기-기대.해(기독교대한학교가 해답이다)	0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40 [정기후원의 날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	00 체인지 더 월드	00 C채널 특별대담 교단장에게 듣는다 40 'Pray with us' C채널 중보기도회
	10:00	10 TV 설교/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00 7000마리클-땅끝으로	2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00 달리는 구원열차 30 GOODTV 오늘의 예배	00 성지가 좋다 30 클래식 말씀의 창 - 박종순 원로목사
11:00	00 TV 설교/임석순 목사의 주일 아침 강단	00 [생방송] CTS 뉴스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00 CGN라이브워시 (다와서 찬양해) -경산중앙교회- 20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00 CCC주일채플 박성민 목사 30 이길수 목사의 십자가의 능력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복음강단 -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오후	12:00	00 TV 설교/꽃재교회 김성복 목사 30 TV 설교/순복음대학원대학교 한별 총장	00 CTS남만 레코드 (워십 코리아)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00 CGN 투데이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	00 GOODTV 뉴스 20 기도하는 노트북 30 능력의 기도	20 말씀의 창 - 마라.타교회 이영은 목사 50 비전메시지 -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TV 설교/영광교회 윤보환 감독 30 TV 설교/광림의 말씀 김정석 목사	00 생명의 말씀-김진홍 목사(진주국제기도원) 30 에스라 성경학교 50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0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40 2020 정기후원 모금방송 (함께 미디어선교)	00 주향 목사의 The impact of Logos	30 말씀의 창 -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
	14:00	20 TV 설교/김양재 목사의 우리들말씀	00 [생방송] 풀링2 50 #클럽CCM 시즌2	30 2020 정기후원 모금방송 (함께 미디어선교)	00 믿음의 여정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 40 성지 다큐멘터리 - 그 길을 걷다
	15:00	10 율포원	00 7000마리클-땅끝으로 55 신앙에세이	20 아동원 목사의 열두 사도 이야기	00 지성과 영성의 만남	00 힐링토크 회복 50 노년담화
	16:00	10 더 콜링 : 부르심의 소명 30 율호교목사의 축복의통로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 30 생명의 말씀-황용식 목사(신애교회)	00 온누리교회 어린이예배 30 [말씀] 김한요 목사(배달교회)	00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미니다큐 20 하늘양식 신나는교회 이장기 목사 50 말씀의 생터 팽태성원교회 박종권 목사	00 진짜 영성공부 50 인생을 바꾸는 7분 예수가 길이다
	17:00	30 TV 설교/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0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50 빛으로 소금으로	10 R.T. 캔달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 4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0 말씀의 생터 세계로방주교회 방재길 목사 50 GOODTV 계시판	00 스페셜 힐링토크 회복 50 사진작가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18:00	00 TV 설교/오른교회 김은호 목사 30 TV 설교/온누리버전교회 김동국 목사	00 3D애니메이션 (히즈소 바이블) 30 다음세대 마이크 ON	1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20 [말씀] 김정우 목사(동산교회)	00 주일예배실황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50 더 메시지	00 말씀의 창 - 홀리씨드교회 서대원 목사 30 말씀의 창 - 든든한교회 장형희 목사	
저녁	19:00	00 TV 설교/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 50 CBS 교회소식	25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사 3부 미래클 30 다시 만나는 장경동 목사의 비행기	0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40 미셔널 디사이플스 컨퍼런스	00 GOODTV 스페셜 우리들의 교회 합동의 이름으로 다시 서다	00 비전메시지 - 개원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00 TV 설교/사랑의 말씀(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20 글로벌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익철 목사(송도가나교회)	2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30 말씀의 생터 동탄사랑의교회 이주호 목사 40 비전메시지 - 동탄하나교회 이석 목사	00 오정현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 복음강단 -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비전메시지 - 동탄하나교회 이석 목사
	21:00	00 TV 설교/산정현 강단(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 30 TV 설교/강남중앙교회 장산영 목사	00 생명의 말씀 30 생명의 말씀-박형준 목사(순복음명동중앙교회)	00 CGN 투데이 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40 2020 정기후원 모금방송 (함께 미디어선교)	00 비전설교 해성교회 정영호 목사 30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미니다큐 50 GOODTV 뉴스	10 C채널 가정예배 - 김병중 목사 30 클래식 말씀의 창 - 이원원 원로목사
	22:00	00 TV 설교/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30 TV 설교/주님의교회 김화수 목사	00 CTS 뉴스 30 성지를 달리다(Dive Thru)	3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	10 지성과 영성의 만남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30 성지가 좋다
	23:00	00 CBS 금요철야예배/CBS금요철야예배 59 이름 목사의 성경책잡기:337강 - 출애굽기 16장 4~10절지도를 를 비판하게 하는 마귀	00 7000마리클-땅끝으로 55 신앙에세이	20 상당교회 주일예배	10 천준협 목사의 세계비전	00 장학봉 목사의 통&통 30 개혁주의 생명신학
	24:00	40 TV 설교/광은교회 김한배 목사	00 콜링2 50 인생을 바꾸는 7분	30 생명의 삶 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약에	00 말씀의 생터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30 스카트브레너목사의 하늘의 지혜 잠언	00 'Pray with us' C채널 중보기도회 20 한소망교회 목요찬양
	1:00	10 TV 설교/민장기 목사의 그림설교	00 4인 4색 김성태 목사 30 (교회행진)나의 고백 10minutes 50 아태원의 I LOVE JESUS(39회)	50 나침반 바이블 - 양용의 교수	00 주일예배실황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바람 NEW WAVE
	2:00	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0 에스라 성경학교 40 빛으로 소금으로 50 #클럽CCM 시즌2	2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0 GOODTV 다큐 스페셜 KCA 공공공익 재직지원사업 다큐멘터리	00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고백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3:00	00 새롭게 하소서	00 자판기(12회) 30 문성모 목사의 은혜로운 찬송이야	00 [Global Sermon] David Platt's Secret Church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말씀의 생터 행복교회 조영구 목사 30 말씀의 생터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00	00 TV 설교/땅끝까지 복음(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30 TV 설교/나눔교회 변정현 목사	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20 오늘의 양식 30 클래식 생명의 말씀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00 꿈의교회 드림워십 30 GOODTV 새벽예배 굿모닝 지저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00 성지 다큐멘터리 - 그 길을 걷다 20 C채널 명실교 다시 복음으로 - 김병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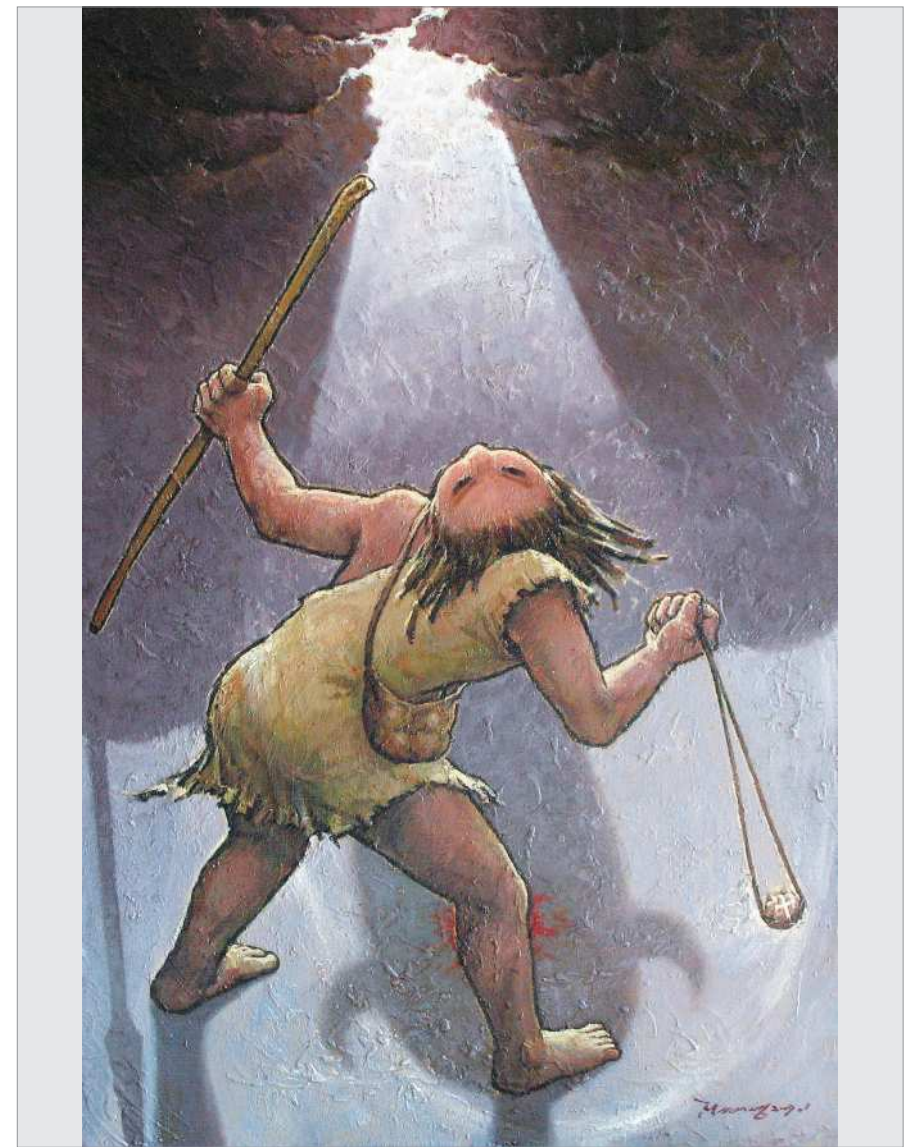
“생명 치유하고 살리는 작품 하고 싶어”



소망 ©전태영 작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대상작) ©전태영 작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전태영 작가

기독교미술 작가소개

전태영 작가

본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멈춘 기독교 문화생활의 아쉬움을 돕고자 독자들에게 기독교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기독교 미술 작가 소개> 코너를 준비했다. 이번엔 소개할 기독교 작가는 전태영 작가이다.

전태영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미술인 선교회에서 회원과 임원을 거쳐 14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초대 작가로서 수많은 국내외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숨은 십자가’라는 주제로 35회째 순회전을 하며 여러 전시로 활동 중인 전태영 작가입니다.”

기독교 미술을 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1995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을 시작으로 계속 출품을 해오던 중에 2002년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미술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망”

“앞이 보이지 않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일어설 의욕조차 없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생각과 판단으로 붓을 쥐는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시간들이 계속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통해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으며 큰 위로와 힘과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5:3-4)

“새 사람을 입었으니”(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대상작)

“화폭 전체에 펼쳐진 흙벽 위로 한줄기 강한 빛이 신을 비추고 있다. 자세히 보면 이 빛 속에는 (골3:5-10)말씀이 양각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특별히 감사자

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흙)은 인간의 본체를 상징하며 (빛)은 주님이시고, 말씀이시며, 수직적 관계성을 의미하고 (신)은 죄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한 땅에 서게 하려고 신을 벗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죄의 모습들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풀어진 끈을 통해 강조하였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이란 달란트로 30년 넘게 이 길만 걸어왔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생활에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며 생겨난 등록금과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은행과 카드사의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걸 보면서 결국,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벽 끝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끝이 안 보이는 1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집배원만 봐도 깜짝 놀라고 명세서가 도착하면 오랜 시간 찌들어 버린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다른 일로 나쁘게 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만 바라보니 해결해 주세요.’ 매일같이 묻고 또 묻는 것 말고는 이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겐 없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다 불면증이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잇몸까지 무너지면서 저의 몸은 그저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함께 할 이 하나 없는 곳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은 타들어 가고, 배는 고프게 가진 것도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 삶을 더 버텨야 하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롬5:3-4의 말씀을 그대로 제 삶에 적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아멘”

광야라는 곳은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으로부터 해방된 장소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목표도, 경쟁구도 속의 인간관계도, 물질만능주의도 다 필요 없는 우리 삶의 가장 원초적인 근원지였습니다. 위선과 허세, 체면 같은 세상의 무거운 겹옷을 벗어 버리지 않고는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곳이었습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외부 활동이 차단되면서 활동도, 전시도, 예배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나를 내려놓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긴밀한 예배로 이전보다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과 작품을 돌아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작가만의 이상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 미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의 구상

작품을 하고 있어요. 이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저만의 색채라 여기고 작품에 임하고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엑스 전시장에서 작품 설명 시간에 한 여성분께서 안경 너머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아~ 이 그림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고백하시는 걸 듣고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림을 해야겠다는 더 큰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 뒤로도 전시 때마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설명과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더욱 기독교 미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며 보다 더 영성 있는 작품을 하고 싶고, 세상에 잘 나가는 그림보다,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조성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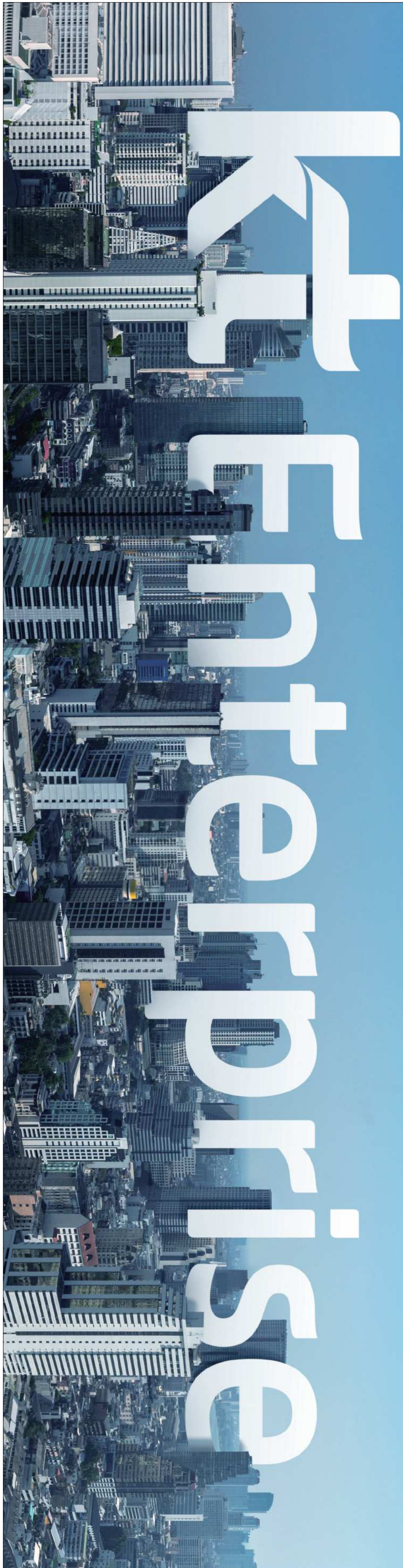


시간의 가치로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곳

롯데캐슬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쌓인다는 것이기에 오늘도 롯데캐슬의 자부심과 품격은 어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LOTTE CASTLE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대한민국 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시작

언택트, 디지털 뉴딜

디지털로 빠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당신의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KT Enterprise가

AI, Big data, Cloud의 앞선 기술과
기업 유무선 통신의 전문성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kt Enterprise